

2025년 6월 4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798호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 없다던 민주당, 결국 우회 발의”

성적지향 등 혐오표현 규제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우회 발의”라는 지적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 조인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

가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선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신설 조문인 1항 2호의 2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아장·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밝히

고 있다. 또 신설된 6호는 앞서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문제는 이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지향 등에 대한 내용의 온라인상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게시자나 관리자에게 삭제·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법 제73조(벌칙) 등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처벌 조항과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소개 내용.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는 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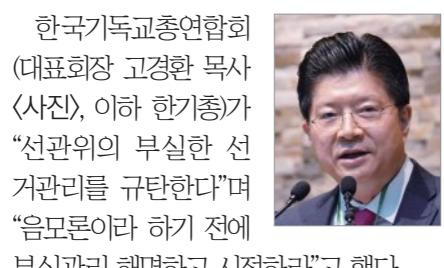
“해당 개정안에는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

별금지 조항이 있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온라인상 정보도 혐오표현에 해당돼 제한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의 심사를 통해 규제될 수 있고, 방통위 시정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방통위 시정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효과를 내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교계에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활을 걸고 저지른 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복붙’해 집어넣었다”며 “민주당 측은 그간 시기상조이며 차별금지법을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 말도 결코 거짓이었나”라고 했다. 노령구 기자

한기총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규탄”

“음모론이라 하기 전 부실관리 해명하고 시정하라”



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마저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만 해도,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촌극, 선거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는 사태 등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드러난 문제가 이러한데,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정에 눈감고, 스스로 부정선거 의혹을 가중시켰다”며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의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선관위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결국은 변명이었고, 충분히 부정

하고, 개표하기 전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할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 후 폐쇄한 쪽이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국민적 갈등을 가져올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치권은 즉각 부실사건에 대해 논의하여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투표에서 이미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묵과하는 것은 선거 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사전투표 부실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AI, 복음 전하는 강력한 도구 될 수 있음을 실감”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 과정’, 성황리에 열려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듯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 과정’이 최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집 정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챗GPT를 활용해 복음 메시지를 담은 시, 찬양 작사·작곡, 아바타 영상, 웹툰, 선교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전파하는’ 실전 중심의 실습 과정이었다.

수강생인 60대 권사 A씨는 “직접 만든 아바타 복음 영상을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에게 보냈더니,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며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며, “AI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기독대학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이제 AI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신학과 기독교 문화를 단순히 가르치는 데서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고 소통하는 창의력 수업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며 감탄했다.

이번 과정을 총괄한 안종배 국제미래학원 회장은 “AI 인류혁명 시대, 크리스천들이 챗GPT와 인공지능을 통해 전도, 선교, 공동체와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양해 하나님 나라 확장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 과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미래학원

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0만 AI미디어선교사 양성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에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대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은 “인공지능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선한 도구로 활용해야 할 시대적 도전이다”며, “AI를 통한 다음세대 교육과 복음 콘텐츠 확산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상 한국미디어선교회 총장 또한 “한국교회에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AI 과정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효과적인 미디어 선교 역량을 갖추고 복음 전파 사명에 주도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자들은 챗GPT 인공지능을 도사 2급 등록 민간자격증과 ‘AI미디어선교사’ 수료증을 받았다.

한편, 이번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과정은 미래목회포럼, 한국미디어선교회, 국제미래학원,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한국기독교AI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했고, 전국기독교수연합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4/14원도우한국연합,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협력했다. 챗GPT 인공지능지도사 1급 과정은 7월 5일 진행된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인들, 대선 위해 금식기도… “투표, 공적 신앙 표현”

에스더기도운동,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

기독교인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행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다.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레이 이기더니”(출 17:1)라는 말씀을 불들고 금식기도를 진행했다. 또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국가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진행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최선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에게 투표는 정치적인 선택 이전에 영적 분별의 결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 세우는 공적 신앙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종립

을 가장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보들의 가치와 정책이 성경적 진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태이의 생명과 우리 자녀들의 거룩,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 동포들을 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국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투표하게 될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는 ‘홀로코스트’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 3면

법학도들 위한 힐링 콘서트 ‘Hidden Paradise’ » 23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한미 양국, 국립현충원서 6·25 참전용사 공동 추모

호국보훈의 달 미국 현충일 한미연합 HONOR 합동 추모예배 열려

호국보훈의 달 미국 현충일 한미연합 HONOR 합동 추모식 예배가 GreatKoreaUnion과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의 주최로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현충원유적부대전적위령비 앞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6·25 전쟁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전몰장병을 기리는 자리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 열사와 미군 참전용사를 공동으로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6·25 전쟁 발발 직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북파된 서북청년단 호림부대(현 국립현충원 위폐 176위



호국보훈의 달 미국 현충일 한미연합 HONOR 합동 추모예배 단체 사진. ©대한민국 자유대연합

인치)와 최근 별세한 6·25 참전 미군이자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장을 고수해온 행글 전 미 하원의원을 특별히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민국자유대연합 조수경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권태섭 목사의 대표기도, 박동호 목사의 설교, 양승재 목사의 추모기도, 봉헌, 권태섭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기억 받지 못한 희생, 자녀들의 눈물(롬 13: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동호 목사는 "6월 호국보훈의 첫 날, 자유를 위해 피 흘린 모든 참전용사들

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며 "특히 북파호림부대와 미군 참전용사들이 헌신은 한미동맹이라는 불멸의 유산

상세히 전했다. 박 목사의 부친은 수차례 부상으로 전신에 고통을 안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상이군인이었으나, 당시 국가는 부상병에 대한 사후 치료나 배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상이군인은 사회에서 '불편한 존재'로 취급받았고, 자녀들 또한 짓어진 옷과 형벌 버선을 신고 가난 속에 자랐다"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가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의 유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보상이 제공되는 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가족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며 보훈 정의의 실현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남북분단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신앙적 성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추도식은 조수경 회장의 인도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한미연합 합동추모 의의 설명, 추모사, 현화·분향, 만세삼창,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추모사 순서에서는 한국은 윤상현 의원, 또 미국에서 온 선거감시단의 브래들리 테이어(Bradley Thayer)가 했다.

한편, 행사는 대한민국 회보 추모 기도회 순서로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설난영 여사 비하 논란 유시민 작가 고발당해

"가족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작… 국민 주권 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작가(노무현재단 전 이사장)가 고발당했다.

권경희 씨(복음언론인회 공동회장)와 김상용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유 작가를 설난영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

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현장에는 권 씨 외에도 박원영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정광택 고문(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정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등이 함께했다.

앞서 유 작가는 5월 28일,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

연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

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밤이 공중에 떠 있다.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때까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 그런 뜻"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권경희 씨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여성의 인격

을 짓밟는 천인공노할 언어폭력이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와 인권 존중 정신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반문명적 행위"라며 "이는 설 여사의 출신과 학력을 문제삼아 그녀를 '낮은 학벌의 노동자' 취급하며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전형적인 성차별적 계급 차별적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지 한 명의 여성을 모독한 것

이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와 그 가족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 다수를 조롱한 것"이라

며 "이는 정당한 선거 경쟁이 아니라, 가족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작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다.

박원영 운영위원장은 "설난영 여사는

25세의 나이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강단 있는 여성 노동운동가

였다.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돋기 위해



권경희 씨(왼쪽 두 번째)가 정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왼쪽 첫 번째), 박원영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왼쪽 세 번째), 정광택 고문(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왼쪽 네 번째) 등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 측 제공

탁아소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으며, 감옥에 있는 남편을 2년 반 동안 묵묵히 지켜주며 가족을 부양한 인물"이라며 "유 씨는 특정인의 출신, 학력, 성별, 계층을 근거로 인격을 조롱하고 여성과 노동자 전체를 향한 혐오와 편견을 드러내며, 현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유시민 작가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측의 해당 방송 삭제 및 재발방지 약속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 및 공적 사과와 이재명 후보의 입장표명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고발에는 김문희 대표(10만 학부모연대), 박소영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연희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준희 대표(자유대학) 등이 뜻을 함께했다. 김진영 기자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한가협·우남아카데미, 교육 협력 MOU 체결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와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교장 하화주)가 다음 세대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바른 성경적 성가치관 확립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설립한 대안학교다.

양 기관은 최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 적용, 디지털음란물도박·마약 등 다양한 중독 예방 전문 강의 제공,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정기 간담회 및 성과 평가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교육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교육 장소 제공 및 개발된 커리큘럼의 현장 적용을 맡는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전문 강사진 지원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역량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지연 대표와 손현보 목사. 그 옆엔 하화주 교장 ©한가협

제공한다. 하화주 교장은 "우남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인생관을 함께 나누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대표도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과 학부모, 교사 대상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중독 예방 교육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양측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과천시, 신천지와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에 나섰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다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정된 단체다.

2일 과천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인 신천지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수십년 전부터 신천지의 본부교회로 사용된 과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10층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해당 공간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됐었고,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과천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조

치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거부했다. 과천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우려, 공공의 이익 저해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신천지 종교시설이 모탁포교의 본거지로 활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 및 교통 혼잡 등을 호소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신천지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안양지원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시가 제시한 민원과 교통·안전 문제 등은 일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과천시는 지난달 초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기존 2개의 법무법인에서 1곳을 더 늘려 3곳의 법무법인으로 공동 대응체제를 꾸렸다. 새롭게 추가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과천시와 유사한 고양시 사례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종교시설 집결에 따른 집단행동과 추가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러한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 공공성 여부를 2심 재판에서 면밀히 검토해 승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LX Z:IN



퍼펙트 슬림뷰: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한국교회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개관
대표 송만석 장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연구
반유대주의의 원인은 기독교의 '대체 신학'
기독교인-이스라엘 형제임 깨닫는 것 중요
박물관, 역사적 참상과 이후 발전상 등 조명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종 학살 사건인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오늘날 비극과 잔혹함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대인' 약 600만 명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다.

이 '홀로코스트'를 한국에 알리고 교육하기 위한 박물관이 지난달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개관했다. 이 박물관은 '야드바솀을 넘어 살롬으로'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야드바ܫ'은 '홀로코스트'의 히브리어다. 즉, 역사의 비극을 교훈삼아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뜻을 품은 박물관이 문을 연 것이다.

'한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대표는 송만석 장로다. 그는 한성경연구회(KIBI) 대표를 맡으며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연구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송장로는 인류가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이



한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대표인 송만석 장로가 전시된 자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라고 믿고 있다. 불행했던 역사지만 그것을 바로 직시할 때 그 재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뜻을 구현하기 위해 박물관은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알리는 다양한 사진과 자료, 소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 입었던 죄수복과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의 일부를 재현해 더욱 사실감을 전달한다.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은 '안네의 방'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어지던 공간으로, 홀로코스트의 상징적 장소다. 안네는 이곳에서 일장을 통해 전쟁의 공포와 자신의 꿈, 인간에 대한 희망을 기록했고, 이것은 나중에 '안네의 일기'로 출간돼 전 세계에 알려졌다. 박물관은 이 방을 재현해 안네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송 장로는 "이러한 종교적 차별은 근세 시대까지 이어졌고, 유대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별 속에서 배제됐다"며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흑사병과 같은 혼란 속에서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되었고, 이와 같은 유럽 사회의 암묵적 합의는 결

된 것은 역사에 대한 그의 신앙적 해석이 크게 작용한 까닭이다. 그는 "반유대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중세부터 이어진 기독교의 '대체 신학'"이라며 "이 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사상을 중심으로 하며,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낙인찍는 편견을 조장해 왔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교회는 유럽과 미국에서 전해진 대체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아왔고, 특히, 하마스의 테러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테러리스트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에서도 반유대주의적인 구호와 시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기독교인과 이스라엘 하나님 형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또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죄수복이 전시돼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자료들 ©김진영 기자

한,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고, 한국-이스라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물관은 단지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보여주진 않는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발전된 모습을 여러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음악, 예술, 문학, 철학, 과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도 조명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 당시 유대인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게 돋는다.

"홀로코스트 기념 전시관은 단순한 역사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현재의 반유대주의를 경계하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과 화해, 이해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시관을 방문하여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기억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박물관은 △홀로코스트 참상을 알리는 전시공간 △1948년 독립 이후 이스라엘의 눈부신 발전상 △스페인 종교재단을 통한 유대인 학살의 역사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끼친 위대한 기여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 유대인들 등 총 5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은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내 아트팩토리 1층에 마련돼 있다.

김진영 기자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열려… 예장 합동·대신 우승

한교총 주최·천안시기총 협력으로 열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주최했고 한국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정동균 목사)가 주관했으며,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가 협력한 '2025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가 2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백석, 기하성, 기침, 기성, 예선, 예장 합신, 예장 대신, 예장 백석대신, 나성 등 총 11개 교단이 참가했다. 참가 교단은 예선 조 편성에 따라 '할렐루야A', '할렐루야B', '임마누엘' 등 3개 조별 풀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치렀다. 모든 경기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교총은 "각 경기에서는 승리를 떠나 건강한 교제와 연합의 열기가 넘쳤으며, 목회자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진한 감동의 장면들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준비위원장 정동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는 단순한 스포츠 행



총 11개 교단이 참가한 가운데 2일 천안축구센터에서 '2025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가 열렸다. ©한교총

예장 합동이 우승, 임마누엘 팀에서는 예장 대신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에 앞선 개회예배에서 공동대표회장 아음 목사(기침 종회장)는 산 개와 죽은 사자' 제하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자가 되어 생명력 넘치는 축구대회, 한국교회 축구목회자들이 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장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종회장)

는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 기독교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선교 초기 한국에 복음뿐 아니라 음악과 스포츠를 전해주신 선교사들의 정신을 오늘 우리 가 계승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오늘에 이어가는 주역들"이라고 격려했다.

한교총이 마련한 목회자 축구대회는 2018년 첫 대회에 이어 4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교단연합체인 한교총 내 회원교단 간 교류와 친목을 통해 연합정신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진영 기자

디아코니아세계선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 성료

경북 포항에서 초교파 선교단체 디아코니아세계선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근 포항시 남구 벨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장병섭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역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디아코니아세계선교회는 2015년 오륙 선교회 포항지부를 모태로 2022년 4월에 공식 출범했다. 해외 현장에서 교회 건축, 주거환경 개선, 동물은행 운영, 피딩 사역, 장학 지원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12개의 해외 교회를 건축했으며, 동물은행을 통해 돼지 50마리, 양소 20마리, 산란닭 100마리를 분양해 현지 자립을 돋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보홀과 사이판에서 단기선교를 진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박종근 부총재의 인도로 시작되었고, 김대근 사무총장의 찬양과 박정기 고문의 기도, 최윤섭 이

사의 성경봉독, 구선희 목사의 특송이 이어졌다.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닫힌 문을 여는 사람들'(사도행전 12:5, 1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이현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손병렬 목사는 "복음의 문이 닫힐 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며, "디아코니아세계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시역이 힘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장병섭 총재의 환영 인사와 박종근 부총재의 축제의 활동 보고가 있었고,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또한 베트남 동물은행, 필리핀 현지 목회자 자녀 지원,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학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정글 교회 자립 후원을 위한 기금 전달도 이루어졌다. 이어 김송 복음가수와 비아이리니스트 김미, 소프라노 이영화, 김용문 장로가 축하공연을 펼쳤고, 내빈 소개와 공지사항 발표 후 축하 만찬으로 행



디아코니아세계선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와 기념행사 현장의 모습. ©디아코니아세계선교회

사를 마무리했다.

장병섭 총재는 인사말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디아코니아세계선교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시 포항새물결교회에서 정기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몽골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이갈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수소 벌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다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 to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KOMIPO
한국중부발전

“18세기 영국 노예무역 폐지운동, 복음주의 영향력 확대했던 계기”

윤영휘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서 발제

2025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가 사회적갈등과 기독교세계관: 책임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최근 호서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강연 중 하나로 윤영휘 교수(경북대 사학과)가 월버포스의 반노예제 운동: 사회적 갈등해소와 도덕자본의 정치를 밝혔다. 윤 교수는 “노예무역 폐지운동은 17세기부터 등장한 과학혁명, 이산론, 계몽주의 등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하던 기독교 세속화에 적극 대응하던 하나님의 계기였다”며 “영국 복음주의 정치가들은 사회개혁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갈 기회를 발견하게 됐다. 그 시작은 바로 월리엄 월버포스의 등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월버포스는 1759년 영국 북동부 항구도시 헬에서 은행업을 장악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복음주의 성직자가 된 존 뉴턴은 월버포스의 큰아버지였다”며 “월버포스는 24세의 나이로 영국 유크셔 하원의 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중 월버포스는 당시 가족 유럽 여행에서 동행한 캠브리지 대학 수학과 교수이자 성직자 아이작 밀러와의 논쟁, 그리고 그와 함께 가졌던 독서 토론을 통해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785년 11월 월버포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세상을 등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그의 정치적 동지이자 헛날 영국총리로 재임한 피트는 월버포스에게 정치 속의 성직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며 “그의 큰아버지 존 뉴튼 또한 세상과의 고리를 끊지 말 것도 권고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월버포스의 회심을 계기로 반노예제 운동가들은 월버포스를 찾아가 노예제 폐지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월버포스는 1787년 5월 설립된 ‘현대 노예무역 폐지 협회’의 중책을 맡게 됐다. 이것이 그의 노예제 폐지를 위한 정치적 투쟁의 서막이었다”며 “그는 1787년 10월 일기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썼다”고 했다.

그러나 “노예무역 폐지 담론은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데이비드 엘티스, 허버트 클레인, 스탠리 엠거먼, 시모어 드레서, 로저 앤스티 등 여러 학자가 제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1514년부터 1866년 사이에 약 1,06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대서양 반대편을 향해 팔려 갔다. 아프리카를 떠난 흑인 중 약 870만 명 정도가 목적이지에 하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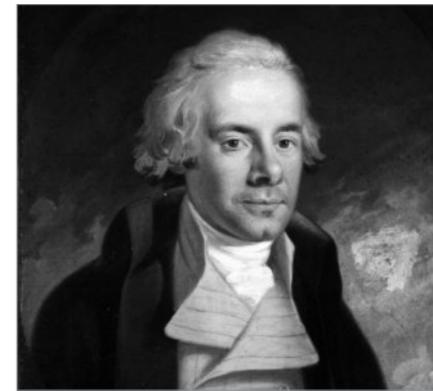
그리면서 “하버드대학의 경제사학자 닐 퍼거슨에 따르면, 18세기 당대 영국은 최대 노예무역 국가였다. 영국에 의해 대서양 반대편으로 강제 이송된 노예의 수와 수익률을 각각 300만 명과 연 8-10퍼센트로 잡는다면 오늘날 영국이 지불할 배상금은 260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고 했다.

특히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수출된 노예는 18세기에 주로 서인도제도로 팔려갔다. 이는 당시 서인도제도의 제당업은 유럽의 최대 산업이자 고도의 노동집약적 사업이었고 이 필요를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채우게 된 것”이라며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의 주요 해외 식민지인 서인도제도의 경제에서 노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고, 이는 노예무역 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당대 정치인 대부분은 노예를 노예 농장주의 ‘재산’으로 평가했고, 그 연장선에서 반노예제 조치는 그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예제 폐지는 영국 국가 경제의 엄청난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당대 인식으로 1789년 5월 처음 제출된 노예무역 폐지를 지지하는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는 것을 경험했던 이들은 이듬해 1792년부터 노예무역 폐지협회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계속 제출했다”며 “이 청원서 운동은 1805년에 정점에 달해 런던 등지에서 최대 규모의 청원



윤영휘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답하고 있다. 그 오른쪽은 최현진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윌리엄 월버포스 ©기독일보DB

운동의 거센 반발이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월버포스의 노예제 폐지 운동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공동체를 통해 좀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797년 월버포스는 런던 근교의 클래փ에 위치한 헨리 손턴의 집에서 복음주의 정치가들과 교류하면서, 이곳은 영국 정치사에서 한 획을 그은 ‘클래փ 파’(Clapham Sect)의 본거지가 됐다”며 “이들은 기독교적 대의를 하나의 정파가 오롯이 대변할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성경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다양한 집단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영희 교수는 “이들의 탈정파적 태도는 당시 집권 세력인 피트파와 애당 쪽스파와의 협력으로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클래փ 파는 노예무역 폐지는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양심이 이의 문제로 만들기 원했고, 각 정치 세력의 경계를 뛰어넘는 지지 속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월버포스를 비롯한 클래փ 파의 초당적 협력이 노예무역 폐지를 이끈 첫째 요인”이라고 했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월버포스와 그의 복음주의 정치가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대중 여론에서 찾았다. 1791년의 폐배 당시 이미 517건의 노예무역 폐지를 지지하는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는 것을 경험했던 이들은 이듬해 1792년부터 노예무역 폐지협회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계속 제출했다”며 “이 청원서 운동은 1805년에 정점에 달해 런던 등지에서 최대 규모의 청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반대 여론의 폭발적 계기는 1806년 11월 선거였다. 이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무역이 이슈였던 선거였다”고 했다.

그는 “월버포스는 이때 노예무역 폐지에 전통적 지지자들뿐 아니라 여성들까지 규합했다. 월버포스는 여성과 월버포스는 다시 한번 승리할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여론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전차 확산됐던 노예무역에 대한 대중 여론의 반감은 결국 1807년 노예무역 폐지를 이끌게 된 두 번째 요인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윌리엄 월버포스 등 노예무역 폐지론자들이 대중 여론의 거센 반감을 이끌던 주된 논리는 당대 종말론적 위기감이었다”며 “노예무역 연구자 니콜라스 가이트는 19세기 초 복음주의 반노예제 운동가들이 공유했던 특정 중 하나로 종말론을 꼽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당시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집권 아래 프랑스와 전시 상황 속에 있었고,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국 복음주의자들은 18세기 말 나폴레옹의 전쟁, 인플레이션, 전염병 등을 영국의 노예무역의 악행이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며 “월버포스는 노예무역을 영국의 국가적 죄악으로 해석하면서 노예무역 폐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했다. 월버포스는 자신의 저서 ‘실제적 견해’에서 영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도덕성의 회복이며, 이것이 진

정한 기독교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예무역 폐지론자들은 영국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도덕자본을 부여했다. 즉 정치인들은 노예무역 폐지 활동을 통해 얻은 도덕적 위신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며 “일례로 월버포스의 친구이자 1783년부터 1806년까지 총리로 재임했던 피트는 집권 1기(1783-1801) 당시 직면했던 정치적 난맥을 집권 2기 때(1804-1806)는 노예무역 폐지를 통해 돌파하려 했다. 피트는 노예무역 폐지론을 주장하며 야당과의 초당적 연합을 이뤄냈고, 또한 당시 나폴레옹의 무력 통치와 구별되는 영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고양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나 “1807년 노예무역 폐지가 공식화된 이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안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이는 1833년 하원에서 통과된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해 구체화 됐다”며 “영국은 2000만 파운드가 넘는 보상액을 지출해야 했고, 이는 1833년 당시 영국 예산의 40%에 이르는 금액이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 과정에서 월버포스는 노예제로 큰 수익을 창출했던 서인도제도 농장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며 “결국 반노예제 세력들은 서인도제도 농장주 세력과의 정치적 탐욕을 통해 반대편도 설득하는 도덕 자본의 최대치를 얻는 방식을택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보상 비용은 대부분 영국 국채

관리청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고, 노예방으로 영국 정부가 지게 된 부채는 2015년이 돼서야 모두 상환됐다. 월버포스는 국가 개혁이란 ‘선한’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것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까지 동조했을 때 이뤄진다는 것을 체득해 왔다”며 “그리고 자신이 정의롭게 여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노예무역 폐지는 18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계적 우주관과 이신론의 영향으로 일반인의 심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상실해 가던 유럽의 기독교가 18세기 초중반의 부흥 운동으로 수세에서 벗어났다면, 18세기 말 영국의 복음주의 정치가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노력을 했다”고 했다.

그는 “어떤 국가 안에 기독교인 비율이 높아진다고, 혹은 기독교인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기독교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가 높은 지위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적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정치가들은 기독교인이 어떤 직책을 차지하는가 아닌 기독교적 가치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나아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노예무역 같은 악습을 철폐하고 도덕 개혁을 위한 정치적 운동에 나서게 되는 데는 종말론적 위기감이 중요한 동기로 사용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운동 안에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가 제공하는 도덕 자본을 강조하여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복음주의 정치가들의 운동은 상반돼 보이는 종교(도덕)와 정치적 이익의 한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최대 공통 분모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예를 제공했다”고 했다. 패밀토의는 김동준 박사(현대기독 연구원 대표)가 맡았다.

노형구 기자

황세형 목사, 한일장신대 신임 총장에 선출돼

한일장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황세형 목사(66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한일 신학은 최근 열린 제2025-4차 이사회에서 황 목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해 만장

일치로 제9대 총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황 총장의 임기는 5월 31일부터 4년간이다.

황 총장은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호남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 신

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23년에는 호남신학대학원에서 명예 신학박학위를 받았다.

1987년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황 총장은 1990년 목

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서울 당일교회, 자양교회, 남원동북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했으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온성교회 위임목사로 섬겼다. 2024년에는 같은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한편 황 총장은 장로회신학대학원 이사, 호남신학대학원 이사, 대한예수교장

로회 종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교계 및 학내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슬로 바이블 : 내리티브로 천천히 깊이 읽기』, 『설교를 위한 요한의 예수 이야기』, 『로뎀의 그늘 : 쉼, 만남, 충전』 등이 있다.

노형구 기자

**힘센 충남아!
대한민족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아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총청남도



“생명 흘려보내자”… 수영로교회 설립 50주년 예배 드려

부산 수영로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최근 본당에서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수영로교회 설립목사인 정필도 목사의 사모 박신실 여사의 영상 축사에 따르면, 1975년 정필도 목사가 구름 떼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환상을 받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수영로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 목사에게 ‘항상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수영로교회는 현재 재직 교인 2만여 명에 육박하는 부산 지역의 최대 교회 중 하나다. 정필도 목사는 2011년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재직해 왔던 이규현 목사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한 뒤에도 선교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2년까지 집회를 9년간

총 352회를 했다. 이 중 국내 집회가 208회, 해외 집회가 144회다. 정 목사는 지난 2022년 별세했다.

수영로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 개’의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으로써, 350만 부산의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50만 영혼을 책임지며 50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여 부산과 세계를 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이다.



수영로교회 전경 ©수영로교회

리고 또 꽉 찬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충만함은 나 스스로만 만족이라고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죽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데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신자들은 ‘~주세요’라는 기도만 반복하며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



감사예배에 모인 신자들. ©수영로교회

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만족 증후군에 빠져 있다”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여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 여러분들 각자

가 교회가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역사를 일으키길 바란다”며 “우리가 예수님을 친양하는데 어떻게 우월증 등 정신적 쇠약함에 빠질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행복과 친양에 겨운 크리스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설교에 이어 박신실 사모 등 수영로교회 역사의 산증인들이 간증하는 영상이 상영됐고, 더불어 수영로교회의 역사를 담은 뮤지컬이 상연됐다.

노형구 기자

남원중앙교회, 인도네시아 교사 초청해 사역·문화 교류 진행

12일간 전국 교회·사역지·문화 현장 탐방

다음세대 사역 위한 회복과 비전 공유

남원중앙교회(담임 정종승 목사)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피센터 빈민촌 희망학교 교사 10명을 초청해 한국교회 사역 현장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남원중앙교회는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지역 교회 및 기관과 협력해 추진했다. 이번 초청은 인도네시아 교사들에게 사역의 회복과 도전, 비전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장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31년 사역지의 결실… 선교적 파트너십 속에서 시작된 초청

이번 교류는 2022년 10월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목사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중 자카르타 해피센터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 목사는 해피센터를 통해 사역 중인 최원금 선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선교 현금을 전달했고, 이후 교회 차원의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2023년에는 1차 교사 초청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이번 2차 방문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여수 밤바다 불꽃쇼 등 남해안 지역의 주요 문화 명소를 탐방했다. 17일에는 남원 원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남원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세움학교 교사들과 함께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교육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저녁에는 남원중앙

교회 목양실에서 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자카르타 해피센터와의 협력 사역 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18일 주일에는 유아부, 유초등부, 교육자실, 도서관, 세움학교 위원회 등 교회의 다양한 부서를 둘러보며 사역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세움학교 스승의 주일 연합 예배, 주일 2부예배, 인도네시아 선교예배 등 예배 프로그램에도 함께하며 영적 교류를 나눴다. 이날 선교예배 후에는 최원금 선교사에게 선교헌금이 전달됐다.

19일부터는 본격적인 한국문화 탐방이 진행됐다. 광한루원 관광,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체험 후 춘천으로 이동했으며, 교사들에게는 체육복, 손수건, 십자가 손뜨개 등 환영 선물이 제공됐다. 이후 일정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안디옥교회(춘천), 광염드림교회(의정부), 새로운교회(서울), 평안교회(부천), 영광교회(대전) 등 국내 주요 교회를 방문해 사역을 견학했다. 또한 비전스쿨, 복지관, 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역지를 돌아보며 다음세대 사역의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는 KAIST 캠퍼스 방문, 양화진 선교사묘원 탐방, 한강 유람선 탑승, 남이섬,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체험, 한국의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고속버스 이용 등이 포함됐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선한 영향력 끼

친는 교사로 성장하길’

방문을 마친 인도네시아 교사들은 “한국에서 받은 영적 도전과 감동이 컸다”며 “남원중앙교회의 사랑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현지 사역에서 받은 사랑을 나

는 교사들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자체 워크숍과 기도회를 통해 이번 방문에서 받은 도전을 정리하고, 현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목사는 “2차 인도네시아 빈민촌 히망학교 교사들에게 한국교회의 영성과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도네시아 다음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들이 되길 기도하며 초청을 하게 되었다”며 “남원중

앙교회가 다음세대부터 세계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중앙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하는 중보기도 선교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협력선교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비전선교 △하나 되어 동역하는 동역선교를 선교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7개국 13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인천공항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중앙교회

남원중앙교회 세움학교 행복축제 참여자

기념 사진. ©남원중앙교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피센터를 위한 기

도회 사진. ©남원중앙교회

청주시기독교연합회, 굿네이버스 필리핀 산이시드로 사업장 방문

청주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황순환 목사)와 굿네이버스 대전충북사업본부(본부장 오아름)가 지난 5월 27일 굿네이버스 필리핀 산이시드로 Pintor 지역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위해 청주시기독교연합회는 총 20명의 방문단을 조직해 굿네이버스 필리핀 산이시드로 지역개발 사업장(CDP)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방문단은 직접 후원하고 있는 결연 아동 가정을 방문해 결연아동과 가족들을 만나 격려하고 식료품 및 생필품을 손수 준비해 전달했다. 이뿐 아니라 결연아동의 질병 예방 및 보건 위생 인식 개선을 위한 가정별 위생 교육 키트를 지원하고 비누 만들기 및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필리핀 마을버스 조합 및 오토바이 택시 조합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지역

교통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굿네이버스 필리핀과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센터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취업 및 경제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이해를 다졌다.

황순환 청주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은 “지역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일하는 굿네이버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을 통해 다음세대를 위한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기독교연합회는 굿네이버스와 2024년 8월 다음 세대를 위한 협약 가능하고 자립적 삶을 위해 기본적 생활 지원 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개발과 지역 사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람

김진영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편스친구

카카오톡 편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청년·문화 사역자 인진한 목사, 10년 만에 LA에 돌아온 이유는?

30년 사역 돌아보며 <노블 라이프> 집필, '찬란한 인생 재단' 사역 준비

인진한 목사는 한국에서 청소년, 방송 사역을 하던 중, 92년 미국에 와서 남가주 사랑의교회 부교역자로, 그리고 앤엘 이 한인타운에서 미주 최초로 크리스천을 위한 쉼터이자 복합 문화공간 "향기 나는 숲"을 무료로 운영했다. 또한 이곳에서 청년을 위한 햇빛교회를 시작하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17년 간 목회, 문화 선교 잡지 발행 사역을 감당했다. 2003년 어느 매체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이민사회 청년들에게 마음이 기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가 LA한인타운에서 20대 청년을 위한 문화사역과 교회를 시작한 것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던 때 교회가 삶에 버팀목이 되어준 기억 때문인데, 교회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코리아 타운에서 만난 청년들을 보면서 이를 향한 비전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진한 목사는 청년, 문화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에 이르자, 2015년 LA 사역을 마무리하고,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장로교회(선임), 예술교회(담임)에서 목회 사역

에 전념했다.

작년, 그는 다시, 청년들과 동고동락했던 그의 삶이 묻혀 있는 LA로 돌아왔다. 지난 10년동안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점점 청년사역이 사그러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의 30년간 사역을 반추하여 <노블 라이프>를 집필했고, 또한 이 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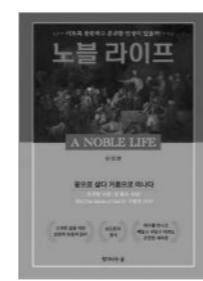
미주 기독일보에서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책 <노블 라이프>(A Noble Life)와 그의 새로운 사역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 시대는 성도들을 향한 유혹과 도전이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고귀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과거 한국교회에 특징이었던 성도가 아닌 학생과 현신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믿음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성경적 지침서가 필요



찬란한 인생 재단 대표 인진한 목사.



책 <노블 라이프>.

하다고 여겨 본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책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귀한 성도는 세상과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본서는 성경적 성도론과 제자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을 귀담다. 예수님을 빼닮다. 예수님이 따르다"로 크게 4가지 주제를 나누고, 각 주제에 맞는 20가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존귀한 성도는 고귀한 믿음으로 찬란한 인생을 산다"입니다.

Q.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초신자, 청년,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

거나 영적 무력감에 빠진 분들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돋고, 사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제목, 내용, 문장, 단어, 예화, 적용등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Q. 이 책은 자살률 통계와 '귀차니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절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법들을 교회가 도입하는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성경적, 복음적, 사명적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인의 만족을 위한 탁아소, 끼리끼리 누리고 즐기는 유럽선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을 위한 영적 훈련소, 구원을 위한 희망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도록 구원, 복음, 희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Q. 책에서 '존귀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존귀함'은 세상에서 강조하는 자존감이나 자기긍정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복음적인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의 설교나 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존 맥아더, 존 피어퍼, 마이클 휠튼, 팀 켈러, R. C. 스

프를, 박영선 목사님 등 성경 본문 메시지 중심과 복음적 교리를 따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Q. 앞으로 계획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신다면? 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쉽게,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란한 인생 재단'의 모든 사역은 <노블 라이프> 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존귀한 성도의 찬란한 인생'이라는 주제의 말씀 선포와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자존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주제로 새로운 형식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에 교재 및 다양한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찬란한 인생을 위한 말씀 선포(예배, 집회, 수양회, 특히 청년부) 2) 영적 분별력과 찬란한 인생 세미나 3) 소그룹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지원

'노블 라이프' 책은 판매하지 않고 가능하면 많이 배포하려고 합니다. 재단사역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기자

코리아타운 넘버원 패이스, HeritAge PACE 한인 고령자 위한 맞춤형 돌봄 제공

HeritAge PACE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혁신적인 'PACE (고령자를 위한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CE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로, 원활 경우 집에서도 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HeritAge PACE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의료, 생활지원, 비용 지원의 세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의료 서비스로는 주치의와 전문의의 정기적 진료, 전문 간호사의 건강 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치방약 관리 및 영양 상담 등이 포함된다. 생활지원 서비스에는 사회복지사의 개별 상담, 가정 방문 돌봄, 주간보호센터 이용, 교통 지원 및 가족 돌봄자 교육이 포함되어 어르신의 일상 생활을 전폭 지원한다.



PACE 서비스 제공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특히, HeritAge PACE는 한국 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있어 언어장벽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을 포함한 맞춤형 식단 제공, 전통 건강 관리 방식과 현대의 학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HeritAge PACE의 참여 대상은 로스 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요양원 수준의 의료 케어가 필요하면서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가

토마스 맹 기자

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분들이다. Medicare와 Medicaid 가입자는 추가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 이용자에게도 맞춤형 비용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빗 고 사장(HeritAge PACE)은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친숙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케어 전문가로서 혁신적 돌봄 서비스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 Dr. Young-Jik Lee, Medical Director는 30년 이상 내과 전문의 경력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세심히 관리하며,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 관리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탈북자 선교 대부' 윤요한 목사, 평생 사역 마치고 소천



탈북자 선교와 북한 복음화에 평생을 헌신해온 미국 사제를 고향 선교회 대표 윤요한 목사(사진)가 현지 시간 지난 5월 28일, 향년 87

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지병으로 투병하던 중에도 탈북 동포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윤 목사는 26년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1천여 명에게 임시 거처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200여 명의 탈북자를 한국과 미국 등지로 망명시키는 데 앞장섰다. 특히 2005년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 중 체포, 15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출옥 후에는 미국 국회의 청문회, 미 국무부, 유엔 본부 등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며 국제사회에 북

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도 힘썼다. 고향선교회(2002년 설립)를 통해 시애

들과 미국 전역, 한국에 탈북자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을 도왔다. 그는 탈북자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고 북한 선교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요한 목사의 사역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2007년 미국 트리인 재단 '용기 있는 시민상'(Citizen Courage Award)을 수상해 상금 5만 달러 전액을 탈북자와 북한 지하고교 선교에 사용하기도 했다.

김민선 기자

솔로몬대학교 제2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개최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박사)가 최근 제2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에서는 기독교 상담학 박사 2명, 신학박사 1명, 기독교 음악 박사 2명, 목회학 석사 4명, 신학

학사 6명 등 총 15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은 백지영 총장이 사회, 남가주 교협 증경회장 지용덕 목사의 설교, 세계 복음화운동본부 대표 피종진 총제의 축사, 유나이티드신학대학장(원) 총장 권다

니엘 박사의 권면, 남가주목사회 증경회



솔로몬대학교 제 2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장 김재연 목사의 축도 등이 있었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보기(29) ‘예수님의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20절



이번엔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소위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한다. 본문을 통해 앞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왔지만, 이 시간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의 마지막 유언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모든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인 대위임령은 주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던져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선교의 근거에 대해서이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두 개의 커다란 기둥으로 받쳐주고 있다. 하나의 기둥은 18절을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다는 전제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 주어졌다는 말인데,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교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둥은 20절 끝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또한 우리의 선교 사역과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이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그 어떠한 말보다도 이처럼 최상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8절과 20절의 이 큰 두 기둥의 말씀은 선교의 든든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교는 우

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도 없거나와 변해서도 안 되는 주님의 권세 있는 최상의 명령인 것이다.

둘째는 선교의 초점에 대해서이다. 주님의 대위임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초점 혹은 집중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다. 대

위임령에는 다른 명령도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곧, ‘가라와 세례 베풀라’와 ‘가르쳐 자키게 하라’ 등이다. 그런데 네 개의 명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은 선교의 목표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본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보다 다른 일, 예를 들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선교 센터를 짓는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 현지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학교나 병원이나 농장을 세우는 일, 신학교를 세우는 일,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 등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런 일들도 배제해서는 안 되나, 선교의 가장 우선순위와 목표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교회나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비록 한 지역에 적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할지도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선교의 초점과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 사역이고 영

적인 시역이므로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것으로 선전효과나 과시효과를 내보여서는 안 되고, 선교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선교의 범위에 대해서이다. 본문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민족’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국가나 민족이 아닌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들이 현재 처해있는 가까운 곳에도 그런 종족이 많이 있다. 특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즉 다문화, 다언어, 다종족들도 선교의 대상이 된다. 벌써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수가 260만 명, 아니 3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그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선교가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일방통행적이었으나, 이제

는 어디에서든지 다방면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서구권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온 세계를 향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말씀묵상기도]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통해 주시는 선교의 근거와 초점(목표)과 범위(대상)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김영휘 목사/선교사

KWMA 운영이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목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매.마.토.2’ 시즌3 시작, ‘재즈 찬양 콘서트’로 열어

서미미 재즈밴드 공연, 김수배 목사 간증 전해

최원호 목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받는 시간 되길”

서울 종로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담임목사 최원호)가 진행하는 ‘매마토.2’ 시즌3의 막이 올랐다.

지난 5월 31일 서미미 교수 초청 ‘재즈 찬양 콘서트’로 진행된 매마토.2 시즌3 첫 행사는 흥이 절로 나는 재즈풍의 찬송가와 찬양, 가요와 재즈 공연으로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은혜제일교회의 ‘매마토.2’는 매달 마지막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의 및 간증, 북콘서트,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지역 주민과 정서적 유대감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2023년 12월까지 시즌2를 마쳤다.

이날 초청된 서미미 교수는 재즈파아니스트이자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실용음악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존 찬양을 재즈풍으로 재해석하여 대중들도 쉽게 즐기는 재즈 찬양을 알려왔다.

파이어스트 서미미 교수를 비롯하여 베이시스트 박관우 씨, 드러머 이상준 씨, 객원 보컬 조우진(Joe) 씨로 구성된 서미미 재즈밴드는 이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 천하 만물 우리’ 기뻐하며 경

배하세’, ‘소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재즈풍으로 연주했다. 또 재즈 연주자 헷 베이커의 ‘밝은 징조를 찾아요(Look for the Silver Lining)’ 이문세가 부른 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을 부르고, 앙코르 곡으로는 세 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로 마무리했다.

서미미 교수는 6월 중 최원호 목사의 저서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의 출판을 해 온 김수배 목사는 “센터밀 목사가 테러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턱부위에) 구멍이 뚫려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이빨이 없어 음식물을 넣으면 줄줄 새서 죽을 먹는데, 그것도 새서 손수건을 가지고 맴었다”며 “한국 의술로 고쳐주려고 했는데, 의료대란으로 치료를 못 받다가 더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의사를 만나 1차, 2차 수술에서 턱뼈를 만들어 넣고 찢어진 잇몸과 이빨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비자가 만료돼 재발급을 위해 방글라데시로 갔다”며 “입술과 불모양 등을 만들려면 3차 수술까지 필요하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알코올·디지털 기약물·도박 등 4대 중독과 부모 교육, 콘서트에 참석한 기독교천사운동연합 대표 김수배 목사인천하늘꿈교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순서에는 없지만 즉석에서 무슬림들의 테러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방글라데시인 센터밀 목사(Stephen Sudip Mir)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기독교천사운동연합을 통해 목회자 및



최원호 담임목사가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서미미 재즈밴드가 공연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선교사 유가족들에 생계비 지원 사업 등을 해 온 김수배 목사는 “센터밀 목사가 테러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턱부위에) 구멍이 뚫려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이빨이 없어 음식물을 넣으면 줄줄 새서 죽을 먹는데, 그것도 새서 손수건을 가지고 맴었다”며 “한국 의술로 고쳐주려고 했는데, 의료대란으로 치료를 못 받다가 더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의사를 만나 1차, 2차 수술에서 턱뼈를 만들어 넣고 찢어진 잇몸과 이빨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비자가 만료돼 재발급을 위해 방글라데시로 갔다”며 “입술과 불모양 등을 만들려면 3차 수술까지 필요하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알코올·디지털

청소년 진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자살 예방 등을 주제로 활발한 상담 사업과 교

육 사업을 해 온 최원호 목사(교육학 박사)

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곧 주인집 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생각지도 않은 것들로 도우신다”며 “매.마.토.2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

나님의 사랑을 불들고 하나님의 자녀답

게 살아가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이왕이면

주인집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이 예비한 많은 선물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CTS 남부방송과 기

독교천사운동이 공동기획하고, 쭈바이브

랜드 이종분 대표, ART. P 예술연구소 문

혜민 대표를 비롯하여 쭈브레드 필, 중랑

구 1318 청소년상상마당, 행복한사모대

학, 아름드리봉사단 등이 후원 기관으로 함께했다.

은혜제일교회는 6월 8일 주일 오후 2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소속 난스신학대

학 겸임교수 허천희 박사를 초청해 ‘루디,

칼빈, 웨슬리 신학의 통합적 이해에 대한

특강 시간을 갖는다.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최원호 목사의 신간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예영커뮤니케이션)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이날 저자인 최 목사가 직접 책의 메시지를 전하고, 책을 쓴 계기가 된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와 그림’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찬양 콘서트도 함께 진행한다.

참석자들에게는 저자가 직접 사인한 책

을 선물로 줄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제17회 사랑의 빨간밥차 바자회

6월 26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오프라인 바자회 열어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가 2025년 사랑의 빨간밥차 온라인 바자회를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바자회는 온라인 쇼핑몰(사랑의밥차바자회.kr) 형태로 운영되며, 바자회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정한 후 본부로 연락해 상담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은 택배(착불) 또는 직접 수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바자회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화장품, 세탁용품, 주방용품, 육식용품, 선물세트, 의류, 외식상품권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6월 26일에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제17회 사랑의 빨간밥차 바자회도 진행한다.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는 “사랑의밥차 바자회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문의 및 결제 1600-4022)

이지희 기자

21번째의 도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BPA |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20+1
BPA
부산항만공사 창립 21주년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원활화 항만 실현

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복합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확장

시작합니다 —

PCUSA “올해 말까지 교인 1백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도”

미국 최대 장로교 교단인 미국장로교회(PCUSA)의 교인 수가 올해 말까지 1백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PCUSA 통합 임시 기관이 교회 통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4년 4만9천여명의 교인이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교인이 1백9만4천여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백4만5천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활동 교인 수는 2021년 보고된 것보다 약 15만 명 감소했고, 교회 장로 수는 2021년 약 5만6천9백명에서 지난해 5만1천4백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회원 교회 수는 2023년 8천5백72개에서 2024년 8천4백32개로 140개 감소했다.

그는 PN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이정

그러나 재정 기부는 늘어났으며, 교단에 대한 정기 기부금은 2023년 약 18억 2백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약 22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세례 건수도 증가했다. 세례 건수는 2021년 7천5백11건에서 2024년 7천8백26건으로 증가했다. 교단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로 규정하는 교인 수가 2023년 1천5백47명에서 2024년 1천7백28명으로 약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 작성자를 감독한 팀 카갈 목사는 PCUSA의 공식 매체인 장로교뉴스서비스(PNS)에 현재의 감소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교단 회원 수가 1백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N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이정



미국 켄터기주 루이빌에 위치한 PCUSA 본부. ©PCUSA총회

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러한 맥락에서도 PCUSA는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PCUSA는 교인 수와 활동하는 교회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2000년에는 25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었지만, 현재는 1백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PCUSA는 교단의 쇠퇴로 인해 직원을 감축하고 기관과 사역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P는 “이러한 쇠퇴의 한 요인은 교단의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인해 수백 개 교회가 항의의 표시로 PCUSA에서 탈퇴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0년 PCUSA 총회가 지역 기관이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을 때, 이 결정으로 인해 약 3백개 교회가 교단을 떠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ECO: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를 결성하기로 투표했다.

그는 2012년 “가장 중요한 필요는 대명령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점점 더 늘어나는 영적

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참된 성경적 예배의 10가지 측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셉 마테라 목사가 기고한 ‘참된 성경적 예배의 10가지 측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마테라 목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컨설턴트,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언약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마테라 목사는 “예배는 주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첫 번째 계명,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신명기 6:5)과 일치한다. 이 주제를 탐구해 보면, 예배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자 우리 삶의 궁극적인 표현임을 알게 된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1. 눈물로 예배하다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고통과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한다. 눈물로 드리는 예배는 연약함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은 울며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낸다.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위로와 치유, 그리고 회복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항복의 한 형태다. 우리가 눈물로 예배할 때,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신뢰와 찬양을 받기에 함

당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2. 예물을 통한 예배

예배에서 예물을 가져오는 행위는 가인과 아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바쳤다. 이는 예배가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물과 자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장 21절)라고 말씀하셨다. 현금을 통한 예배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경, 그리고 믿음을 나타낸다. 십일조든 현금이든, 관대한 행위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3. 예언적 음악을 통한 예배

음악은 예언적 예배를 위한 강력한 매개체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났다. 찬양과 애��으로 가득 찬 시편은 계시와 위로, 그리고 돌파구를 가져다주는 예언적 노래의 예다. 예언적 음악을 통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선보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를 하늘의 선율에 일치시켜 이 땅의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을 초대한다.

4. 일을 통한 예배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

예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예배는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일터로 확장되어 탁월함, 근면함, 그리고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신성하다고 가르쳤다. 교사, 예술가, 사업가, 부모 등 어떤 직업을 하든, 당신의 일은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고 그분의 창조적이고 지속하시는 능력을 반영하는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다.

5. 순종을 통한 예배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일깨워 준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경외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예배 형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증명하는 예배 행위였다(창세기 22:5).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순종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뜻에 일치시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에 벌맞춰 걷는 것이다.

6. 찬양을 통한 예배

찬양은 예배의 가장 눈에 띄고 강력한 표현 중 하나다. 시편 95편 1절은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높이 외치자”라고 선포한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목소리를 하

나로 모아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한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사도행전 16:25), 그들의 예배는 문자 그대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7. 감사를 통한 예배

감사는 성경적 예배의 기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한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고난에서 그 분의 주권으로 돌린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누가복음 17:11-19)는 감사를 예배의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더 깊은 친밀감을 쌓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준다.

8. 예수님이 동행하는 예배

예베소서 5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권면한다. 예배는 단순히 말이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이처럼 겸손, 섬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 그분의 형상을 반영한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com

드러내며 예배의 삶을 사셨다(요한복음 17:4).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끊임없는 예배의 제물이 된다.

9. 창의성을 통한 예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세기 1:27). 따라서 창의성은 그분의 본성을 반영하는 예배 행위다. 예술, 음악, 글쓰기, 혁신 등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창의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배의 강력한 표현이다. 출애굽기 35장 30-35절은 브살렘과 오를리암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막을 위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보여준다. 예배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분의 위엄을 구

체적이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다.

10. 성경 묵상을 통한 예배

시편 1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한다. 레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라고도 알려진 성경 묵상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포함한다. 이 수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그분의 진리에 맞추고, 예배로 응답할 수 있게 해 준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공과 열매를 가져온다고 약속한다. 묵상할 때, 우리는 생각을 그분의 계시에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함으로써 예배한다.

이미경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KNOC** 한국석유공사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 대통령, 4일부터 곧바로 임기 시작

인수위 없이 비서실장·총리 지명 차수 전망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궤위 상황에서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인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는 대통령 임기 개

시 시점을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이 임기 중 궤위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임하면서 공식이 된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 채우는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가 바로 그 경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대통령

직이 공식이 되었고, 이에 따라 치러진 궤위 선거로 인해 새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는 4일 오전부터 바로 개시된다.

이 같은 절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제19대 대선 당시에도 적용됐다. 당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돌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인 합참의장과 통

화를 나누며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약식 취임식을 이어갔다.

이번 21대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당시처럼 정식 취임식에 포함되는 예포 발사, 군악대와 의장대 행진, 축하 공연 등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보각 탑종도 하지 않고, 20분 정도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섰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관계자 약 5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규모와 형식으로 이번에도 약식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임명을 시작으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정권 교체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번 대선은 궤위 상황에서의 급박한 정권 이양으로 인해 인수위는 설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대안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이후 일주일 만인 2017년 5월 16일 발족해 약 두 달 동안 운영되며 국정 목표 설정과 운영 전략 마련, 정부 조직 개편 등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박용국 기자

차기 정부, 30조 원 추경 편성 예고…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줄타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2차 추경 추진 공언…

전문가들 “정확한 정책 목표와 선별적 재정 배분 필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와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여파 속에서, 새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내수 기반과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둔화되며 자영업자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추경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직접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추경이 내수 진작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경에서는 최소 10조 원 이상을 소비 진작에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순한 현금 살포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서 산업 전환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활용돼야 한다”며, “AI, 반도체, 전기차 같은 분야는 적자를 놓치면 경쟁력을 잃기 쉬운 만큼 10조 원 이상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로 통상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외환과 무역 지원 예산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민생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산업정책 관련 항목은 본예산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제

기된다. 신세준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피해 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최근 계엄 여파와 경기 침체로 소득이 빠진 건설현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대리운전 기사 등 취약업종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만으로도 30조 원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흥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수차례 추경을 통해 충분히 재정을 풀었고, 이제는 재정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다시 취약계층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어디에 예산을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지 않아야 하는지를 따지는 일”이라며,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중심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민생 회복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단이 될지, 아니면 재정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이나래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차기 정부의 선택에 달린 ‘2050 원전 로드맵’… 대선 결과 따라 추진 여부 갈릴 듯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중장기 원전 전략, 정국 혼란 속 공개 미뤄져… 차기 정권 에너지 기조에 따라 운명 달라질 전망

윤석열 정부가 수립을 추진해온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향방이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로드맵은 탄핵과 계엄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 속에 발표되지 못한 채 미뤄졌으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거나 재검토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국내 원전 산업의 매출 및 고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계획이다. 로드맵은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기반 강화 ▲법제도 및 수용성 인프라 강화 등 다섯 가지 범위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됐으나, 이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부처 간 조율과 예산 검토 등의 절차가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은 수렴했지만 관계부처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경남 민생도论회에서 해당 로드맵 추진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정치가 원전 산업의 미래를 훼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당 정책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로드맵의 추진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로드맵의 원안 추진 가능성은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SMR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원전 수출 기반 정비 등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정책 공약에 반영했다. 김 후보는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텔원 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며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삼고 재생에너지와 조력·풍력을 병행하겠다”고 밝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로드맵의 전면적인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공약집에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원전 관련 세부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토론회에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며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양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로 전력 100%를 공급하는 ‘CF100’ 전략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는 ‘RE100’ 비전을 앞세우며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비해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계획 간 정합성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등이 겹쳐, 기존 로드맵 수립 당시와 여전히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줄줄이 오른 식품·외식 가격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 계엄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국정 공백 속에서 물가를 조율할 중심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하면서, 식품과 외식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는 지난달 30일부터 커피 권장 판매가를 100 원에서 500원까지 인상했다. 이에 앞서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엔제리너스도 지난달 29일부터 커피 가격을 올렸으며, 스몰 사이즈는 200원, 레귤러 사이즈는 300원씩 각각 조정됐다.

커피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월드커피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맥심과 카누 등 대표 제품의 가격을 평균 7.7% 인상했다.

유제품 분야에서도 가격 인상이 잇따

랐다. 빙그레는 지난 3월 아이스크림과 음료 제품에 이어 5월에는 요플레와 닥터캡슐 등 유제품 가격도 조정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지난달 가공유와 밤밀유 등 54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했고, hy는 ‘야쿠르트 라이트’의 가격을 기존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했다.

주류 업계 역시 가격 조정에 나섰다. 오비맥주는 4월 카스와 한맥 등의 맥주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했고, 하이트진로는 5월 테라와 케리의 출고가를 평균 2.7% 조정했다.

서민들의 대표 식품인 라면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심은 지난 3월 신라면을 1000원으로 인상하며 라면과 스낵류 총 17개 품목 가격을 올렸다. 이어 오뚜기는 4월 1일 진라면 등 16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했고, 팔도는 이달 14일부

터 라면 가격을 조정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후라이드 칩 잘하는 집’은 이달부터 전 메뉴 가격을 2000원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후라이드 치킨은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양념치킨은 1만 7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굽네치킨은 모바일 쿠폰용 콜라 1250 제품 가격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20% 인상했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달 돼지갈비 성인 이용 가격을 기존 1만 9900원에서 2만 1900원으로 2000원 인상했으며, 냉면부대찌개는 오는 19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최소 1900원에서 최대 2900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 브랜드의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부대찌개(3인분)는 기존 9900원에서 1만 1900원으로 조정된다. 이나래 기자

나이지리아서 납치된 선교사 중 1명 석방… 다른 1명은 억류 중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케비주에서 지난 5월 21일(이하 현지시각) 납치된 기독교 선교사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석방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기반 선교단체 누페미션(Nupe Missions)의 모세 솔로몬(Moses Solomon) 대표는 26일 기도 공지를 통해,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케비주 자르바르마와(Zabarmawa) 지역에서 사역 중 납치된 오조 존(현지명 말람 야하야)이 이날 아침 전격적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솔로몬 대표는 “오늘 오전 8시 9분, 소코토주에서 걸려온 전화는 말람 야하야였다. 그는 살아 있었고 석방되었으며, 현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중이다. 이는 전적

으로 주님의 역사이며,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고 전했다.

CDI는 함께 납치됐던 실바누스 아부(말람 아부)는 아직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솔로몬 대표는 “기쁨 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말람 아부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긴급히 기도하고 있다”며 “이번 부분적인 석방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 질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CDI는 두 선교사의 석방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나이지리아 토착민으로, 존은 코기(Kogi)주 출신이며, 아부는 니제르(Niger)주 출신이다.

앞서 지난 5월 23일, 솔로몬 대표는 두 선교사가 제자 훈련 수업을 마친 뒤 밤



케나 케비주가 위치한 지도의 모습. ©Creative Commons

들리면 그들의 시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솔로몬 대표는 두 사람이 누페미션에 서 현신적으로 사역해온 젊은 일꾼들이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에 힘써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단 위에서 간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르바르마와(Zabarmawa)인들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으로,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다. 그러나 조슈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4,476명 중 3,100명(69%)이

나이지리아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나이지리아 중북부 지역에서는 폴라니(Fulani) 극단 이슬람 민병대가 농촌 마을을 공격해 수백 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고, 북부 지역에선 보코하람(Boko Haram),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ISWAP)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활동으로 기독교인들이 집단 성폭력, 도로 검문소 살해, 납치 등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남부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리에서 활동하던 알카에다 계열 확장주의 테러조직 JNIM과 연계된 라쿠라와(Lakurawa)라는 새로운 지하디스트 단체가 북서부에 출현했다. 이들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급진 이슬람 이념을 앞세워 활동 중이다.

최승연 기자

파키스탄, 아동결혼 금지법 제정… 결혼 최저 연령 18세로 상향

이슬람주의 반대에도 자르다리 대통령 서명… 기독교계는 환영

파키스탄 정부가 아동결혼을 제한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이슬라마바드 수도권(Islamabad Capital Territory) 내에서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명시하고 있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밤 ‘2025년 아동결혼 제한법’에 공식 서명하며 이를 확정했다.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강경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통과됐다. 특히 파키스탄 이슬람 율법자문기구(Council of Islamic Ideology, CII)는 18세 미만의 결혼을 강간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이슬람 율법시리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남녀를 모두 ‘아동으로’ 정의하며, 아동 간 혹은 성인과 아동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 결혼을 진행하는 이슬람 결혼 등록자(Nikah registrar)는 혼인 당사자의 나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등록청(NADRA)이 발급한 주민등록증(CNIC)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35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과 결

혼할 경우 최대 3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법은 “18세 미만 아동과의 혼인 동거는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파키스탄 인민당(PPP) 소속 세리 레만 상원의원은 이를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하원을 5월 16일 통과한 법안을 19일 상원에 상정했으며, 법안 제정 후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르다리 대통령이 종교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서명한 것은 개혁의 상징이라며, “이 법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우리 소녀들이 교육과 건강,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가진 존재임을 사회가 인정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이슬람 정당 자마아톨 울레마에 이슬람-파즐(JUI-F) 소속의 CII 위원 잘랄루딘은 자르다리 대통령에게 법안 서명을 말릴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꾸란과 순나 위에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법이 사리아와 전통적 가치관에 반하는 것이며, CII에 법안이 회籠되지 않고는 밀하게 통과된 점은 서방의 “가정 폐괴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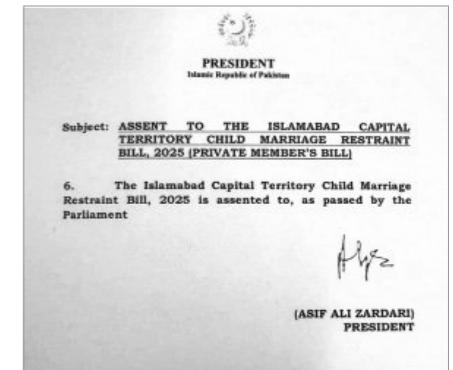
이에 대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는 생명을 통해 CII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HRCP는 “아동 보호를 종교와 종교 동거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여기는 시각은 이슬람 원칙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며,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조건을 금지할 책임이 있으며, 조건은 건강 악화, 교육 기회 박탈, 성차별 고착과 직결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기독교계도 이 법안을 크게 환영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법이 미성년 기독교 소녀들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하고 납치된 뒤 성폭행당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독교 변호사 라자르 알라라카는 “이슬라마바드의 법 제정은 편자브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법안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기독교 소녀들이 강제 개종과 성범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해 편자브주 의회에 제출된 아동결혼 금지법이 조만간 다시 표결에 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편자브주에서는 여야의 법적 결혼

연령이 여전히 16세에 머물고 있다. 2024년 개정된 기독교 결혼법은 기독교인에 한해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올렸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한 경우에는 사리아에 따라 더 어린 나이에도 결혼이 가능하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10세 전후의 소녀들이 납치되어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당한 뒤 결혼이라는 명목

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납치된 소녀들은 종종 법정에서 가해자를 위한 허위 진술을 강요받으며, 재판부는 명백한 연령 증명 서류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녀들을 ‘합법적 배우자’로 간주해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 96%가 무슬림이다. 홍은혜 기자



파키스탄 대통령이 아동 결혼 금지법을 제정해 공고했다. ©CDI

IS, 시리아 과도정부 첫 공격 자처… “배교 정권 병사 7명 사살 또는 부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과도정부를 상대로 한 첫 무장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IS는 자신들이 “배교자 정권”이라 규정한 시리아 과도정부 소속 병사 7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단체가 2023년 이후 공식적으로 자처한 첫 공격 사례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IS는 지난 5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 남부 수웨이다 주 탈루 알사파(Talul al Safa) 사막 지역의 군용 도로에서 공격을 벌였다고 전했다. 첫 번째 공격은 22일 발생했으며, 폭발로 인해 시리아 병사 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IS는 밝혔다. 자유시리아군(FSA)의 정찰 부대도 매복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SITE 인텔리전스 그룹은 IS가 두 건의 복도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폭발물 공격으로 시리아 군과 연합 민병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DC 소재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IS가 최근 2년간 남부 시리아에서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일부 은신처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S는 2017년 미군 주도의 연합군에 의해 시리아와 이라크 내 영토를 상실했지만, 이후 중부 사막과 동부 지방을 중심

으로 지하 반군 형태로 재편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12월, 전직 이슬람주의자 아흐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가 이끄는 시리아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IS가 공식 자처한 공격이다.

새롭게 구성된 과도정부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등장했지만, 차안 회복과 질서 유지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과 서방 정부들은 이 과도정부에 극단주의 세력의 재부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제력 확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BBC의 지하드 전문가 미나 알라미(Mina Al-Lami)에 따르면, IS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 내 “하우란(Houran) 지부”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부는 2023년 이후 별다른 활동을 자처한 바 없었다. 수웨이다 지역은 주로 드루즈(Druze) 소수종교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교파 간 충돌로 극심한 불안정을 겪고 있다.

4월과 5월 사이, 친정부 민병대와 지역 무장세력 간 충돌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 이전인 3월에도 시리아 지중해 연안 라타키야 및 타르투스 지역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 정부는 현재까지 수웨이다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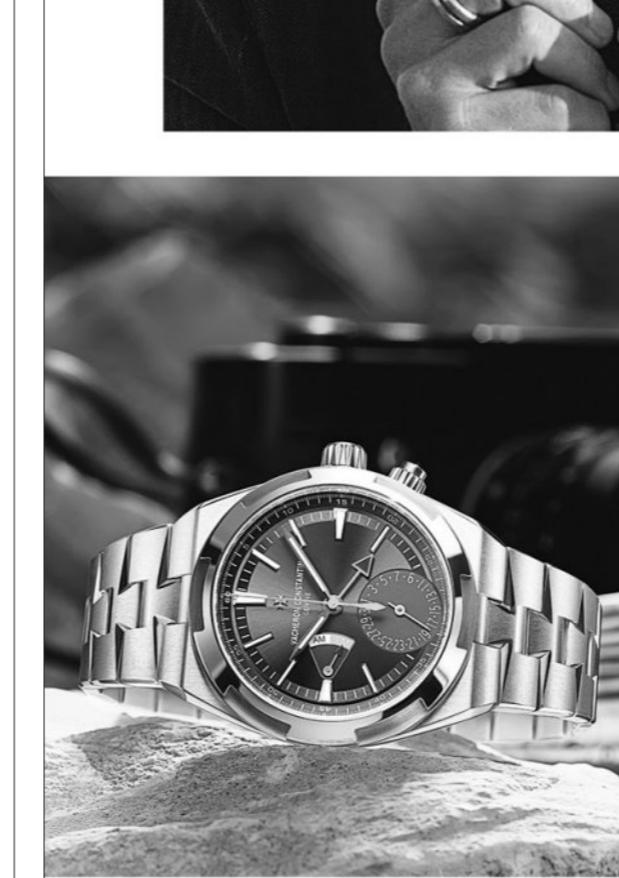
에서 IS의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최근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IS 조직원을 상대로 두 건의 습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전역에서는 전반적인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납치, 절도, 보복성 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은 의명을 요구한 시리아 기독교인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과도정부가 국내 안보보다는 과거의 폭력적 역사를 미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2시간 이하로 전력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도 불규칙하다. 기반시설은 붕괴된 상태이며, 종교와 민족에 따라 의료 인력이 감축되는 등 차별적 조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올해 1월 퇴임 전, 미군이 시리아에서 조기에 철수할 경우 IS가 다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며 주둔군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미군 철군 정책에 따라, 최근까지 시리아 북동부의 소규모 작전 기지들이 폐쇄됐으며, 병력 규모도 2,000명에서 약 1,4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홍은혜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리바이벌 코리아는 계속됩니다 I

일듭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야3:37-38)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45:7)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아닌 화를 허락하시고, 빛이 아닌 어둠을, 평안이 아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자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45:6)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봉동으로 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이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주권을 막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

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빛과 어둠의 창조자요, 개인과 민족의 생사 그리고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환난 속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빛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며, 이 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환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하시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에는 돼지고기, 산토끼,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이

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출세길은 물론, 그들의 인생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뜻을 정하고 나자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지혜자들보다 열 배나 더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난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모든 어둠과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벌어집니다. 인간은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하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환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일까요?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권세가 눈에 들어올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사40:25)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로운 분이 있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선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예배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마음 속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나의 삶을 제어하게 됩니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19:14)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려하나니라 (고전3:16-17)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입재를 의식하며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두려움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모든 형통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생하는 죽리와 관원들의 요청으로 삼십일 동안 다리오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시자 굽에 던져 넣는 법률 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직인 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야 할 뜻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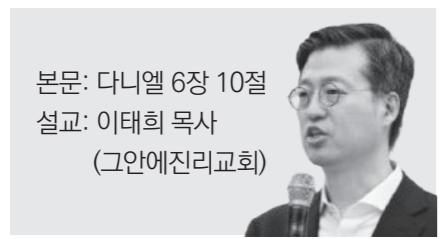
21. 다니엘은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나이다 하니라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단6:21-23)

그러자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사자 굴에 집어 넣었고, 사자들은 그들이 굴에 들어오자마자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려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립니다. (계속)

* 상기 설교는 지난 5월 31일 열린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에서 그 안에진리교회 이태희 목사가 전한 메시지 전문입니다.



주전 605년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지금 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2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열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단1:1-2)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주께서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용하신 봉동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시는

동국의 깔학

철두철미

동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철에 대한 믿음.
푸르른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믿음.

동국이 그 믿음을
빈틈없이 지켜 나갑니다.

70th STEEL with YOU

동국제강그룹

‘성평등(性平等)가족부’ 공약의 의미를 아는가!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란다.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약속을 한 것이다. 평등에 있어서 성평등,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1. 성평등(性平等)

성평등(性平等)이란 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을 뜻한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보면 되고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매우 급작적이고 위험한 개념이다. 생물학적 성을 해제하고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성평등은 자신이 때에 따라 남자도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한다. 성평등이 되면 생물학적 남녀의 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동성애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합법적인 개념이 되어 버린다. ‘성적지향’, ‘성별정체

성’, ‘제3의 성’ 등, 이데올로기가 바로 젠더주류화이다. 인류를 재교육시켜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젠더주류화의 목적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래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1) 성정체성 : 여성, 남성, 안드로진,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시스젠더, 크로스드레서, 젠더퀴어, 논바이너, 리인터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팬젠더,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트랜스섹슈얼)

2) 성적지향 : 남성애, 여성애, 무성애, 양성애, 동성애, 이상애, 다성애, 범성애

3) 기타 : 게이, 레즈비언, 키제이 척도, 폴리아모리, 사물성애, 퀴어, 퀘스체닝, 연애성향

* 참고: 양 성애(兩性愛, 영어: bisexuality)는 사회적으로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감정적, 성적 끌림을 뜻한다. 이 용어는 인간의 끌림의 맥락에서 이성과 동성을 향한 정서적 또는 성적 감정을 가리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2. 양성평등(兩性平等)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자와 여자의 두 성이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에서 차별이 없고 한결같음을 뜻한다. 양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였다(다음 백과에서 발췌).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일원화가 된 것이다.

‘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성평등은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젠더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

힘들다는 것이다.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실현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여자도 남자와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자과 여자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3.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 인권 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별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평등’보다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명칭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2000년 대에 이르러 ‘여성이 강조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였다(다음 백과에서 발췌).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일원화가 된 것이다.

‘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성평등은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젠더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

하고, 간성, 무성, 더 나이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2016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 그런 분위기가 반대로 가고 있다.

4.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현실화가 주는 결과를 아는가?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해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했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젠더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일원화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성평등, 동성애(동성혼)가 슬그머니 합법화가 되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 때부터 바이든 정권까지 동성결혼은 물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정책 가득에 지난 12년 만에 성소수자들이 3배로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 자신을 성소수자(LGBT)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이 9.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실현된다면 미국 오마바 정권에서 보듯이 성소수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정상적 인 가정은 해체되고 나라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국은 퀴어들의 축제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성적으로는 불안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매춘과 미약은 쾌락을 위해 돈을 주고 사는 행위로 서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매춘과 미약으로 인한 성범죄가 극심해질 것이다. 이를 막기로 한 ‘매춘 및 포르노 산업, 미약 산업’ 등의 마피아 ‘홍콩의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마약, 동성혼, 매춘, 포르노, 균친결혼 등 5개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뿐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금기를 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나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엡 5:3-5).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세상 사람들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심히 훼손하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윤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계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

바른 신앙을 위한 신천지 교리 연구⑦



유원선 목사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주제 : 만왕의 왕 평화의 사자
- 신천지 교리(거짓 교리)
신천지는 교주 겸 종회장을 ‘만왕의 왕 평화의 사자’라고 부르며 그의 절대성과 권세를 추앙하며 따르고 있다.

- 성경적 해석(바른 교리)

만왕의 왕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딤전 6:15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이시다. 또한 어린양이자 구원자 이신 예수그리스도(계17:14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도 만왕의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외의 인간중에 만왕의 왕은 존재하지 않는 다.

◆주제 :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신천지의 잘못된 관점
“세례요한은 헤롯의 정치에 참여하다가 죽었다”
- 신천지 교리(거짓 교리)

신천지는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교육하는

헤롯대왕의 정치에 잘못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말한다. ‘벧전 4:15-16’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성경적 해석(바른 교리)

헤롯왕은 이복 동생인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여 세례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세례요한은 체포되어 살해됐다. 세례요한은 악을 행하는 헤롯에게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한 것이지 정치에 참여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주제 :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교육하는 신천지 반증

신천지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세례요한”(거짓 교리)

- 신천지 교리(거짓 교리)

신천지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 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는 말

을 근거로 세례요한은 천국에 들어가

지 못한 배도자라고 주장한다.

- 성경적 해석(바른 교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아마도 천국에 참여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시대 선

자자인 세례요한보다 그들이 큰자라도

상대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예수

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세례요한이 배

도를 했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다.

◆주제 :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교육하는 신천지 반증

“요한이 메뚜기와 석천을 먹었고, 악대 털옷을 입었던 것을 비판한비”

- 신천지 교리(거짓교리)

신천지는 “털옷은 속임수의 상징”(슥

13:4), 메뚜기는 재앙의 상징을 1:4), 석천

은 바위사이에서 나는 꿀풀이 바위의 대적의 바위(신 32:31)를 의미한다고 한다. 부정한 일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누린 세례요한을 부정적인 존재로 본다.

- 성경적 해석(바른교리)

세례요한은 나실인이었기에 나실인의 법에 따라 석천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석천은 죽은 짐승과 아무 관계 없는 꿀이며 요한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킨 것이다. 악대털옷을 입고 다닌 것 또한 빙들의 영성으로 정립하게 입고 다닌 것이지 비유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 이 글은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유원선 목사(전 우리들교회 이단 상담 전문 목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지난 2018년 6월

1~4주차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

주보에 실린 ‘바른 신앙을 위한 신천지 교리 연구’ 칼럼을 발췌한 것입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진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삠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국가와 정치 그리고 신앙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슈를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곳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국가와 현직 대통령과 같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반기독교적 정책이 이슈화 될 때에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치인을 언급하거나,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두둔 혹은 평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전통은 김영길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래왔고, 현재 담임 목사인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 전

심으로 기도하되, 특정한 정치 성향을 지나치게 표방하는 일은 자칫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하나님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와 나라의 국민, 또는 시민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국정, 즉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국가의 정책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혜택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국가를 위해 참여 및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국가와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국가의 정치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국가에 존재하는 죄악을 안타까워하며 중요해야 합니다. 신앙과 정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기독교계의 입장은 마치 정치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치 기독교인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인상마저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믿음 공동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며, 그 모형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전국에는 세상 나라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정치적 회복, 경제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시다 못해, 오히려,

라요,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나라는 한 국민,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 뿐만 아니라, 환난과 팝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국가와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 정체가 있다면, 주어진 투표의 권리를 통해서, 반기독교 법제를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한 가지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 2:1-2)” 이 성경구절이 신약 성경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나타나 있는 기도로 국정에 개입하는 사례입니다.

3일은 2번의 대통령 탄핵 이후 맞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잠시 시련을 안겨주실 수도 있고, 금새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고 계획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단 2:21)”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살아 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단 4:17).”

대선 후 혼돈 벗어나 이웃 섬기는 나라로



최선 박사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속도로와 같은 성공적인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좁쌀과 낙심 그리고 외로움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격랑을 통과하고 있는 배와 같다. 원치 않는 조기 대선을 통하여 서로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과 노인을 비하하며 차별하고 있다. 잘한 것을 칭찬하지 못할지언정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네거리브 공작을 일삼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아니요, 남편 그리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순화된 언어로 표현하자. 그리하여 들는 이들에게 인정과 용기, 희망을 주는 삶, 국민들의 아픔과 시름을 달래주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가이며 목사로 또한 주한 미국 16대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니(James T. Laney) 교수는 1940년대 후반 주한 미군 정보국에서 일을 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역

교 17대 총장으로 (1977-1993)까지 학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총장 임기를 마친 레이니 교수를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하였다. 처음엔 주한 미군 정보국 군인, 연세대학교 선교사와 교수로 그리고 마지막은 주한미국 대사로 봉사하며 대한민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외롭게 보이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매일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의 집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 주거나 커피를 마시며 약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중한 교제를 나누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어르신을 보지 못하자 집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그 노인이 전 날 운명했다는 소식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 노인은 큰 기업의 전 회장이었던 것이다.

그때 한 유족이 레이니 교수에게 노인

이 남긴 유서를 건네주었다. 유서의 내용은 놀라웠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고 우리 집 들의 잔디도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2,675억)와 회사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회장에게 감동받은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미국 예일대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다. 그 후 그는 예일대학

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믿음의 고백을 활용하면 승리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는 위험의 때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고난과 아픔의 때에 정신세계에 충격을 주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넘어뜨릴 때도 먼저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광야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먼저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원수마귀를 분명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시험하는 원수마귀를 말씀의 고백과 선포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할 때도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부잣집의 철없는 도련님과 같았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감옥생활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별 고난 없이 왕이 되었기에 자기생각을 뒤집고 불순종하는 실패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고난과 아픔의 광야를 지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고, 낮아짐과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키웠습니다. 결국 실패와 고난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때는 성장의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무너질 수도 있

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이깁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문 걸어 잠그고 말 안하는 부부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믿음의 한 마디, ‘미안해, 고마워, 잘못했어, 사랑해’ 말하는 부부는 이기고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을 통해 애국심이 더 고취됩니다. 운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고백과 선포를 통해 마음이 끓어오르고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라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의 없다가도 응원을 통해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소리치면서 뜨겁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증거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24) 고난의 때를 성장의 때로 만들기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세상일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여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끌어올립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상처를 마주하는 사람만이 상처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가끔 상처받았던 과거 사건에 대한 꿈을 꾸릅니다.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 꿈속에 등장합니다. 여전히 저를 고통합니다. 의식적으로 저는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만으로 부족해서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무의식 속에는 그분이 제게 준 상처와 고통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저는 과거를 떠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자 자주 설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은 정녕 과거의 상처를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모순이죠, 글쓰는 사람의 민낯입니다.

상처란 신비롭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때는 상처가 되고, 어떤 때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극복합니다. 반면에 어떤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가시처럼 짜르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만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처를 입히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능한 남은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한편의 목회서신을 쓰기 위해 늘 글을 읽습니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를 숙고합니다. 그런 고심 중에 한 문장이 제게 다가오면 그 문장을 붙잡고 글을 씁니다. 이번 주간에 저를 찾아온 문장이 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자만 이 상처 너머의 세계를 본다.” 상처를 마

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얹혀었던 감정들, 슬픔, 수치심, 섭섭함, 울음함, 분노, 외로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상처를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경험한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뇌리에 새겨진 상처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상처의 근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상처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담긴 진주를 깨닫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글로 쓰거나, 눈물로 표현하십시오. 또한 신뢰하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생겼는지, 상처 때문에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상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상처 받았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처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상처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공감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상처를 재해석할 때 과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상처를 진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 너머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한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돌아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처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깊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신 깊입니다.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과거를 떠나 얼마든지 소망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상처를 잘 치유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상처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상처가 영광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새를 통하여 배우는 삶의 지혜



이상기 목사
평강교회원로

이른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창가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새들이 필자가 사

는 참가로 아침마다 모이는 것은 작은 틀에 우리가 먹기 위해 삼아놓은 몇 가지 잎이 부드러운 채소들 때문입니다. 집 앞에 물려드는 참새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채소를 먹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알이나 작은 곤충들만이 그들의 주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를 너무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새순이 돋아나기가 무섭게 참새떼가 물려들

어 먹어치웁니다. 그래도 참새떼들을 미워하거나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저들이 먹는 양보다 자라는 채소들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지렁이가 아무리 먹어도 지구의 흙을 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채소밭에서 맛있게 쪼아먹는 참새떼를 보면서 배운 삶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참새는 절대로 홀로 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람들처럼 서로 미워하거나 남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지도 아니하고 시기나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로 간에 변함이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배려하며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경찰도 군인도 법원도 없습니다. 참새는 다른 새들에 비해 부자연합니다. 이런 아침에 떠이 활동을 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끊

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참새는 튼튼해 보이고 살이 짜입니다.

필자가 미국에 도착한 날은 52년 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Los Angeles의 날씨는 한국 같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을 자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를 처음 만나준 것은 수십 마리의 참새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참새들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많은 참새를 가까이서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참새들이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나면 급하게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팔매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참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새들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이지?

그 이유를 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미물로 태어나도 축복받은 넓고 부유한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큰 축복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한국의 참새들처럼 이곳의 참새들은 돌팔매 당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손에 접히거나 죽임당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재웅 목사
워싱턴 하늘비전교회

삶과 사람은 굳하고 부딪히며
동글어지고 아름다워진다

데 상처는 더 이상 피하거나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끌어안고 함께 뒹굴면 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하나님께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보다는 바울 자신의 “내가 악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라는 영광스러운 신앙고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힘들고 아파도, 지치고 낙심되어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You, rais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You, never give up!)

삶과 사람은 굳하고 부딪히며 둘째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가슴아픈 일들이 많지만 “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상처(Scar)를 별(Star)로 만들어가는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사는 그 길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상처를 별로 만들어가는 이민자의 삶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3 Stars)이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청계천 복원 20주년’ 맞아 상류 개방... 국제컨퍼런스도 개최

11일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토크콘서트, 청계폭포~광통교 구간 개방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물순환과 수변공간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1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13일 청계 광장에선 토크콘서트가, 11~22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는 청계천 체험행사가 열린다.

컨퍼런스는 하버드대학교 피터 로(Peter Rowe) 석좌교수의 ‘하천 복원을 통한 도시 조성’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 14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청계천 복원 20년의 성과 평가 ▲기후위기 시대 수변공간의 역할 재정립 ▲시민 중심의 수변문화 정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의 회복력과 수변감성도시의 미래 비전을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13일 청계광장에서는 ‘도심 속 수변, 청계천에서 만나요’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박진희 배우의 사회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 김덕원 환경연구자, 인플루언서 알리아, 아심길 등이 청계천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시민과 소통한다.

아울러 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11~22일까지 청계천 상류(청계폭포~광통교) 구간을 2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한다.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변모한 청계천에 직접 들어가 물의 흐름을 느끼고 수변공간을 즐기며, 도시 재생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컨퍼런스와 토크콘서트는 6일까지 워터서울 공식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의견을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정책에 반영, 수변공간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도시 회복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경기도, ‘여성안심패키지’ 여성가구 전체로 확대... 9~27일 접수

경기도가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지원 대상을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범죄 피해 여성에게 확대하고, 9~27일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일 도에 따르면 ‘여성안심패키지’는 스마트홈카메라,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실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안심 물품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군별 지원 규모와 물품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로 신청 전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또는 시군 홈페이지, 시군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여성정책 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31개 시군에서는 범죄 피해 등 긴급 보호가 필

요한 여성에게 ‘여성안심패키지’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내 상시 비치된 안심패키지는 필요 시 현장에서 즉시 배부된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도로공사 “여름철 고속도로 사고 조심 차량 사전점검 필수”

타이어 파손 위험↑
냉각수 보충도 필요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전 차량 점검을 해달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6~8월) 전망에 따르면 이번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상승할 확률이 80% 이상으로 예측됐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오르고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면서 타이어가 과열되거나 내부 압력이 상승해 주행 중 타이어 파손 위험이 증가한다는 게 도로

공사의 설명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마모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흠이 거의 없거나 표면이 갈라진 경우는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안전 운행에 필수적이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 과열로 인해 차량이 멈추거나 손상될 수 있으므로 냉각수가 적정량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색이 탁하거나 부족할 경우 보충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도로공사는 전했다.

아울러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도로가

젖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미끄럼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우천 시 제한속도보다 20~50% 감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52.5%가 화물차 사고로, 승용차나 승합차 사고보다 치사율이 1.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사전에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마 기간에는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보호자 60% “우리 아이 키만 큰다면야”... 성장호르몬 주사

보건의료연구원, 처방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응답자 약 60% 치료 아닌 단순 키 성장 목적
정상 아동 성장호르몬 효과·안전성 근거 부족

보호자 10명 중 6명은 저성장증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키 성장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질환이 없는 정상 아동 대상 성장호르몬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룬 연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비급여 영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첫 사례로, 사용 목적, 인식 실태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특정 의학적 적응증을 가진 저성장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진단을 받지 않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 사용이 늘고, 이에 따른 이상 사례 보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0%는 건강 문제가 없는 일반 소아청소년에서 단순 키 성장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 아동 6명 중 1명은 또래 아동 100명을 줄 세웠을 때 키가 50번째보다 커 평균 신장보다 큰 경우에 해당했다.

성장호르몬 주사 간강보험 급여 기준(또래 아동 100명을 줄 세웠을 때 키가 3번째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아 저신장 비율이 절반 미만(4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치료 필요성과 실제 사용 목적 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사제 공급 내역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 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세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 금액은 약 2.5배 증가해 2023년에는 약 4800억 원에 달했다. 공급량도 연평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진료과별 공급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과가 54.0%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34.9%, 기타가 5.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1.7%)과 경기(20.0%)의 공급 금액이 높았다. 서울 지역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공급받은 요양기관 수는 강남구가 278개(2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26개(10.2%), 송파구 88개(7.1%) 순이었다.

2023년 건강보험(급여) 청구 환자 수는 3만

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7~8배 증가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 및 청구 금액은 해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은 공급 현황과 비슷했다.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질환이 없는 정상 아동 대상 성장호르몬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룬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약 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된 성장호르몬 주사와 관련한 이상 사례는 총 6,309건이었다. 가장 흔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및 주사 시 통증(24.2%)이었고 주사 부위 출혈, 타박상, 종창 등이 보고됐다. 사망(2건), 암증(4건) 등 중대한 사례도 보고됐으나, 성장호르몬과 관련성이 낮거나 평가 불가능했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사례 보고도 함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지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향후 부작용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제 외에도 자녀의 성장을 위해 키 성장 보조제·기구·요법·한약 등 다양한 인위적인 관리를 시도하며, 월평균 약 2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장호르몬 사용이 자녀의 키 성장 및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됐지만 성장호르몬 사용 시기, 주사제 종류별 투여 용량 및 비용,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의료진마다 임상적 의견이 다르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단순 키 성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키 성장 관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NECA 윤지는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원을 최대한 이용해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면서 “성장호르몬 치료의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 153 새싹마늘 원산지: 국내산 제조업체: 헬스코리아
인증번호: 10307836호 헬스장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9-10 소비자상담: 070-7895-1597
*부록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제품 구매하려 가기 →
153새싹마늘 스마트스토어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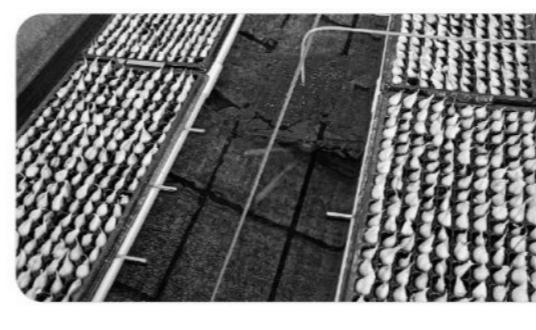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구매 문의 070-7895-1597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 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번지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낯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알하라 이 는 네 빛이 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음이 나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대표 김 덕 겸 목사

**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hanmail.net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감사 약력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생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현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1995. 9 개척
· 2000. 4 1차 성전건축
· 2008. 1 2차 성전건축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 3 無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신청 방법

·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 한생교회: 032-512-3375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바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편안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서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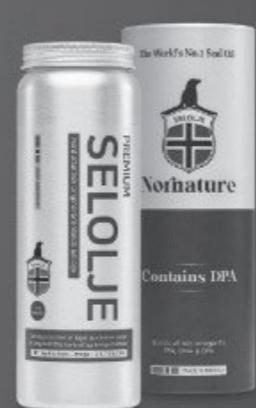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서울판매점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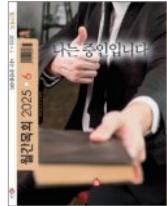
정상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 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복음 전하는 것, 사명 넘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존재 방식”

「월간목회」 6월호, ‘나는 증인입니다’ 특집



「월간목회」 6월호 특집의 주제는 ‘나는 증인입니다’이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가 되고, 세상 앞에서는 말문이 막힌 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각 분야 사역자들의 진지한 조언을 소개했다.

이지훈 목사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 곧 바로 천국으로 블루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 때문”이라며 “증인은 말이 많지 않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했다. 그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삶이며,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다. 부드러움 속에 담긴 용기, 일상에서 흘러나오는 진리,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며 “교회는 복음을 해설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가 세상 앞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은 이곳에 와서, 함께 보십시오라는 초대”라고 했다.

김태훈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 만남은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는 삶의 방향을 바꾸며, 그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쉼을 배우고 열매를 맺는다”며 “고난의 시간조차 그분의 자취를 따르는 영

광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에 하나님은 가장 친한하게 드러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은 특별한 자리를 향한 부름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걷는 삶이다. 증인의 삶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한 헌신 속에서 피어나며 빛난다”고 했다.

김경한 목사는 “1세기 증인들의 역동성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죽음을 무릅쓴 헌신, 삶으로 드러낸 복음, 세상과 불화하되 세상을 위해 올 수 있었던 그 증인들은 그 어떤 언어보다 더 강한 증거였다”고 했다. 그는 “증인의 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걷는 삶이며,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는 긴 여정”이라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마다 멈추지 않고 일어서는 증인들이 일어설 날을 기대한다. 바로 그들의 발걸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다”고 했다.

김상현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의 영역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존재 방식”이라며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침체의 위기는, 증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데서 비롯한 신앙의 깊은 위기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삶 속에서 전도하고,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 된 삶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시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구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단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입술의 말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라며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도 없고, 세상의 회복도 있을 수 없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생명력을 품고, 세상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과 마음으로 증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접 보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깊이 체험한 부활의 확신 속에서, 다가올 그리스도의 계절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복음”이라며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푸르고 푸른 계절을 삼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흥문균 대표는 “신앙의 외형은 갖췄지만, 구원의 본질에서는 멀어진 이들이 있다. 오랜 교회 출석과 선한 행위에 안도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많은 불신자, 이들이 곧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복음은 막연한 위로나 종교 분위기가 아니라, 죄인됨의 철저한 자각 위에 세워진 확신이어야 한다”며 “구원은 애매할 수 없고, 믿음은 흐릿할 수 없다. 언젠가 접觸하겠다는 유예는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는 가장 무서운 작가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6월, 작가들의 말말말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기준이 맞아떨어질 때만 순종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불신앙의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전적 순종이 아닌, 필요적 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신앙적 훈련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열심, 생각, 감정, 결단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비로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계획이 꺾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승희 ‘세상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나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연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인지를 맞이하는 응답’이며, 동시에 인간의 가장 고귀한 영적 행위이다. 고요함은 거룩한 친밀함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이 가장 조용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들려온다. 예배는 다면체의 디아몬드처럼,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 성향,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암자에 머무는 삶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다.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첫 걸음이다. 나의 말이 곧 예배가 된다면, 입술은 제단이 되어야 한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언어는 예배의 통로가 된다.

린다 딜로우 ‘일상의 예배’



여러분이 어떤 시편으로 기도한다면 그저 시편을 한 줄씩 읽어 가면서 영감된 그 본문에 의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본문의 주제에서 벗어나 떠돈다면, 그렇게 헛도는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해 그려모으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읽은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건너뛰어 다음 구절로 나가십시오. 그 구절도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건너뛰십시오. 본문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생기나지 않는다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십시오. 만일 죄스러운 생각이 끼어든다면 그것에 관해 기도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시편에서 스무 절이나 서른 절을 읽더라도 그날에는 겨우 다섯이나 여섯 가지의 생각만 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구절에 대해 빠짐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널드 휴트니 ‘오늘부터, 다시, 기도’

결핵 환자에게 사랑을, 기독 의료인에게 소명을 일깨운 의사

신간 ‘닥터 패티슨의 특별한 처방전’



한국 의료선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닥터 피터 R. M. 패티슨(한국명 배도선) 선교사의 삶과 헌신을 조명하는 기념비적 저서가 출간되었다.

제19차 한국의료선교대회(2025년) 공식 기념도서로 채택된 이 책 〈닥터 패티슨의 특별한 처방전〉은 단순한 인물의 전기를 넘어, 의료와 선교, 말씀과 삶, 헌신과 사랑이 하나로 엮인 한국 복음주의 역사 증언

서다.

이 책은 패티슨 선교사가 직접 제공한 편지와 일기, 사진 등 원자료와 함께, 그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한국성서유니온(SU), 한국누가회(CMF), OMF 등의 관계자 및 주요 사건에 대한 3년여의 심층 취재를 통해 완성되었다.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의료선교의 흐름과 신앙 운동의 맥을 함께 짚는 이 책은 살아 있는 의료선교 유산을 정리한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6년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 소속 의사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은 피터 패티슨은 국립마산병원 소아결핵병동에서 어린이 환자들과 마주했다.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갈비뼈가 드러나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 누워 있는 작

은 생명들을 어루만지던 그 손길은 단순한 의학적 돌봄을 넘어서 ‘전인적 돌봄’의 시작이었다.

1969년 OMF 소속 의료선교사로 재입국한 그는 이후 15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척추결핵 환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그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우선으로 품으며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했고, 병원뿐 아니라 기도회, 캠프, 성경공부 모임 등 삶 전반에서 ‘복음적 의사의 모범을 보였다.

패티슨의 사역은 단순한 진료의 차원을 넘어서졌다. 그는 한국성서유니온(SU)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누가회(CMF)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OMF의 한국지부 개척에도 기여한 복음운동의 숨은 주역이었다.

최승연 기자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옥스퍼드 연구진,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헤친다

데이터와 감정을 추출해 이윤으로 전환하는 AI의 구조… “디지털 식민성” 개념으로 경고

기계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우리의 노동과 창작, 시간을 흡수해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통계와 알고리즘으로 가공해 다시 우리에게 되돌린다. 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문장은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연구소 연구진이 펴낸 책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흐름출판)의 핵심 문제의식을 함축한다.

이 책은 마크 그레이엄, 제임스 멀둔, 캘럼 캠트 등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공동 집필한 인공지능 비판 보고서다. 저자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추출 기계(Extraction Machine)’로 정의한다. 인간 자식, 감정, 노동, 창의성을 추출해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재가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AI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 기반 서비스들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의 결과물이다. 이미지 태깅, 클릭, 콘텐츠 분류 등 반복적인 데이터 리밸링 작업에 수많은 인간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

으며, 이들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까지도 AI는 흡수하고 있다. AI는 미처 자율적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육체와 판단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AI 구조가 단지 효율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노동을 은폐하고 통제하며 인간을 추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비판한다.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화려한 외피 아래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착취 메커니즘을 드러내며,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사유를 요구하는 선언문이다. 이자 분석서다.

이너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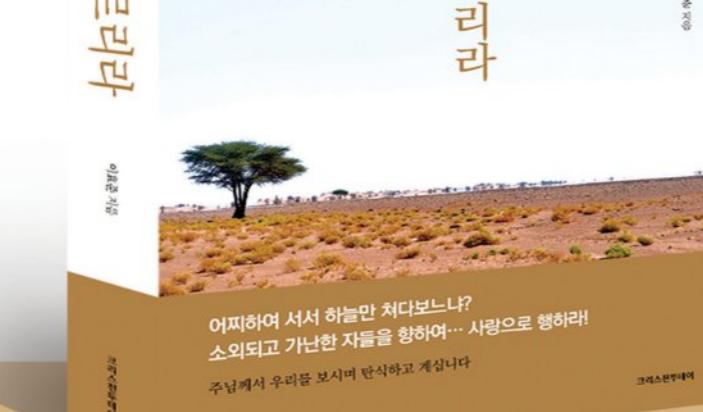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제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장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시편 84:7]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어느 번역이든 그 속에는 진보 또는 발달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묵상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즉 저희가 점점 더 강건해졌다는 뜻입니다. 걸을 때 보면 처음에는 힘이 있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지는 게 보통입니다.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여 질서 있게 나아가지만 가다가 길이 험해지고 헛별이 쌩쌩 내리쬐면 길옆에 앉아 쉬다가 다시 괴로운 듯이 곤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새 은혜를 받아 순례 길을 가는 성도는 여려 해 동안 애쓰고 싸우며 여행한 후에도 맨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원기 왕성합니다.

물론 전처럼 폐활하거나 의기양양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전처럼 열렬하거나 화끈한 열심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능력을 이루는 모든 부분에서는 전보다 훨씬 더 강건해졌으며, 비록 그 보행이 전보다 느려졌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확실한 걸음으로 순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백발의 노장들 가운데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확고하게 진리를 붙들고 열심으로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점



점 냉랭해지고 불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들의 잘못입니다.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 오직 여호와를 양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마 올리감 같을 것이요 달은 백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다”(사 40:30-31)

안달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앞날에 대해 걱정하며 괜히 속을 태웁니다. 그들은

“오, 슬프다! 우리는 불행에 불행만 당하는구나!”라고 한탄합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그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힘을 얻고 더 얻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 한가운데 충분한 은혜가 들어 있지 않은 채 오직 불행으로만 뭉쳐져 있는 그런 불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의 어깨에 짐을 엎으실 때 그와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 즉 원숙한 어른의 힘도 아울러 주십니다.

찰스스필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새^{죽거나}하는 신적이며 영적인 빛 (3)

(교리) 자연적 수단으로 획득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하나님께 영혼에 직접 주입해 주시는 영적이고 신령한 빛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다음의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신적인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려 합니다. 둘째, 이 신적인 빛이 자연적인 수단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주시는지를 밝히려 합니다. 셋째, 이 교리가 진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간단한 적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신적이고 영적인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신적인 빛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적인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이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된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진리에 대한 빛 또는 감각에서 생깁니다. 어떤 죄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죄과 범죄를 더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진리에 대한 빛 또는 이해력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빛과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교리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신적이고 영적인 빛의 전달보다 자연적인 것이 더욱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단지 자연적인 원리를 보조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원리를 주입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는 본성에

보조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점에서 특별 은혜와 다릅니다. 일반 은혜를 통해 얻게 되는 빛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며, 사람이 전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할 때, 단순히 인간 본성이 얻게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 은혜는 단지 영혼의 기능을 도와서 본성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하게 합니다. 즉 자연적인 양심이나 지성은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단순히 본성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고소하고 정죄를 할 것입니다.

양심은 사람에게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자연적 또는 본래 하는 일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주고, 지성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 사이에 있는 상별 관계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나누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본성을 초월하는 것인데, 본성적으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들은 더 이상 본성의 법칙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여러 기능들은 더욱 자유롭고 충분하게 자기의 기능을 하도록 도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타락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영혼의 기능들이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시체처럼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무능했던 마음이 이제는 영적인 일에 대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서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며, 사람들의 자연적인 이성과 이해력을 도와주시며, 다른 자연적인 기능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영혼과 연합하지 않고 말하자면 외부의 객체로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향력 즉 영적인 인용을 하실 때는 특별히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이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상상력 때문에 생긴 어떤 인상이 아닙니다. 이 빛은 마치 육신의 눈으로 어떤 인상을 아닙니다. 즉 외적 빛이나 영광 또는 어떤 형태나 외양의 아름다움 또는 어떤 가치적인 물체의 밝음에 대한 상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이런 것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빛이 아닙니다. 분명 마음이 영적인 것들을 생생하게 감지하고 신적인 빛의 능력에 크게 감동을 받으면 아마 상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밝음에 대한 인상이 이런 영적인 발견에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빛은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상이 아니라 이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연인은 자신의 상상력 때문에 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외적 아름다움이나 가치적인 영광 또는 말이나 음성이나 다른 것에 대한 인상을 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인상은 영적인 빛에 비해서는 아주 열등한 것입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크里斯천은 얼마만큼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크里斯천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께서 돌아오시기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변화된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고린도후서 5:17).

사람은 육신의 일(갈라디아서 5:19-21)을 하다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의 삶을 더욱 더 다스려간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갈라디아서 5:22-23).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만약 사람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극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크리스천들(혹은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9-11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묘사합니다.

11절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4)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vs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

본문

예배소서 4장 17-24절

서론

“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절박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예배소 교회 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이 자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절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 행동, 습관, 사고방식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따지는 삶의 태도, 은혜를 받았다가도 곧 냉랭해지는 변덕스러운 심령, 죄를 미워해야 하

지만 때로 죄를 즐기는 내면의 이중성,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속해 있고, 종교적 활동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예배소서 4:18)는 바울의 진단처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종교적 활동만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히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17절)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메시지가 더 시급합니다.



본론 1

첫째, 옛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삶

바울은 먼저 ‘옛사람’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 우리 의 모습이며, 동시에 아직도 많은 신자가 내면에서 싸워야 할 옛 성품의 문제입니다.

1. 허망한 삶 — 목적을 잃은 삶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본질 없는 공허, 헛됨,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전도서 12:2)라고 합니다.

허망함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자기를 소멸시키는 삶입니다 (시편 39:5 “인생은 모두 허사입니다”).

2. 총명이 어두워진 삶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은 생각과 인식의 능력입니다. 빛

대신 어둠이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19). 죄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오염시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습니다.

로마서 1:21 —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냐?”

3.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18절)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무지

마음이 굳어짐: 석회처럼 단단히 굳어진 완고함

히브리서 3:13 —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4.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옛사람의 가장 비참한 실체입니다. 옛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상태 (이사야 59:2).

5. 각각 다른 삶: 죄에 무감각해짐 (19절)

예배소서 2:1 —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6. 각각 다른 삶: 죄에 무감각해짐 (19절)

‘벗어버리라’ : 옷을 벗어 던지듯이 단

절)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감각 없음 : 양심의 마비.

죄책감이 없어지고 죄에 중독되는 상태 (디모데전서 4:2).

더러운 행실에 험담함 (로마서 1:24-32).

6. 방탕에 방임된 삶 (19절)

방탕: 제어할 수 없는 육체적 욕망. 세속의 쾌락과 탐욕에 인생을 맡김.

갈라디아서 5:19-21 —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으로 이어집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와 허망 속에 점점 썩어가는 존재입니다.

본론 2

둘째, 새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이제 바울은 옛사람과 철저히 구별되는 새사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1. 복음 안에서 배우는 새로운 삶 (20-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자는 예수를 통해 진리를 배운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32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 옛사람을 벗어버림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여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옛사람은 “썩여져 가는 자”입니다. 지속적 부파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 옷을 벗어 던지듯이 단

호히 버리는 것

골로새서 3:8-9 —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3. 심령이 새롭게 됨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됨.

로마서 12:2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중생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5-6).

4. 새사람을 입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리”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창세기 1:26).

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로마서 5:1).

진리의 거룩함: 속이고 숨기는 옛사람과 달리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15 —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본론 3

셋째, 신자의 실질적 적용: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

이 변화는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적용되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1. 자기부인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

누가복음 9:23 —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은 매일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려 합니다. 경건 훈련, 말씀 묵상, 기도,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2.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히브리서 12:14 —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4).

3.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갈라디아서 5:22-23).

빛의 자녀로 행하기 (예배소서 5:8-9).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예배소서 4:32).

적용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습관 속에 형식만 남아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은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욕, 음란, 시기, 미움, 교만, 자존심, 열등감,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의 습관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날마다 새사람을 입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생명 안에 머물고 있는가?

마침기도

“사람의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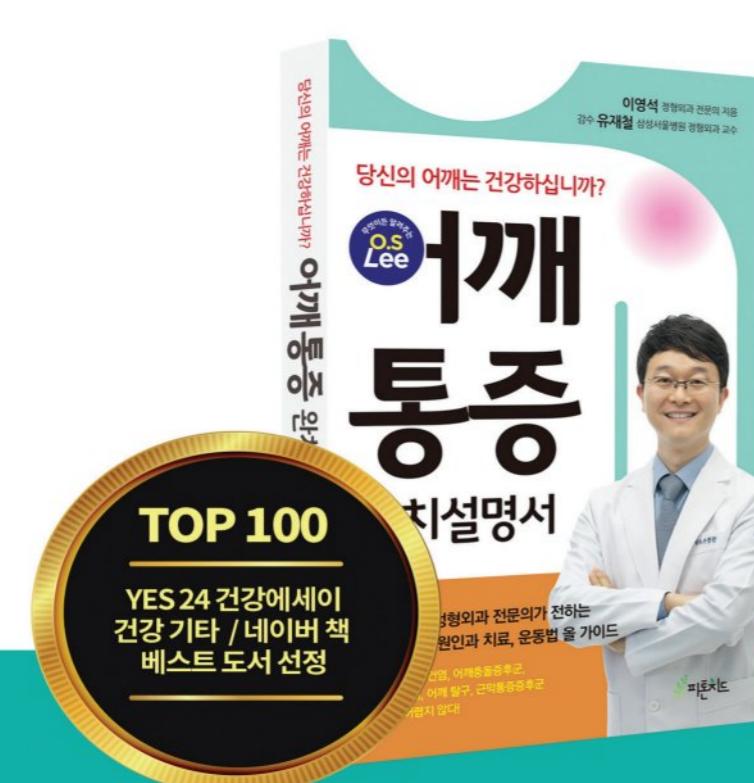
핵심 키워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사람으로 살아가라 —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최원호 목사(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온혜의샘물 풍랑만난 제자들을 돌보신 예수 (1)

[막4:35-41]

마가복음에는 전체 661절 가운데 약 25%에 해당되는 18개의 예수의 기적이 야기돼 있습니다. 이 기적들을 쳐 음 교회에 소개한 마가는 두 개의 바다에서 이루어진 기적과(4:35-41; 6:45-51) 두 개의 광야에서 이루어진 급식기적과(6:35-44; 8:1-10) 두 개의 신체장애자 치유를(7:31-37; 8:22-26) 읽은 이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두 개의 바다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개의 바다에서 이루어진 기적은 예수께서 폭풍을 만나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기적과 폭풍 중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물위로 걸어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기적을 말합니다. 이 두 기적의 특징은 고통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다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고난 중에 함께 계시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예수는 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앙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고, 우리 자신은 망망대해에 떠가는 교회라는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녁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그대

로 남겨 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편’이란 요단 강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가야할 목적지, 성공의 장소, 혹은 꿈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어둠이 짙어 가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바다 건너 저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 일러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행길을 떠난 것처럼(창 12:1),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 아래 노예 생활을 베리고 이집트를 떠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헤쳐나가듯, 신인류들은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배 안에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를 말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신 배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교회나 신인들도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은 교회나 신인 개인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읍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로마제국의 기독교인 박해나 일제의 한국교회의 박해와 같이 악한 세상이나 방지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흉수, 가뭄,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것들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습니다.

사실 인간은 환난을 겪음으로서 환난을 피해 가는 경험과 지혜를 터득하고 환난을 대비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환난을 통해서 발전해온 역사입니다. 인류가 쌓은 문명은 인류가 겪은 환난을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난은 예수를 모신 배에도 있었듯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신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친 바다와 같기 때문에 언제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가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거나 혹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 빛이 믿는 사람에게만 혹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를 모신 사람들의 생활이 절제되고 신실하고 진실 된 신앙생활만큼 예상되는 과실이 방지되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 안에 계신 예수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기도 했겠지만, 제자들에게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나 세상적인 근심걱정 등으로 인해서 함께 계신 예수를 잊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잊혀진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곁에 계신 예수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처럼 때때로 우리는 예수 없이 혹은 예수를 떠난 삶 속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싸우며 곤로인 노젓는 것처럼 환난을 만나 사투를 벌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39절에는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이 좋은 한 가지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잊고 있던 예수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의 노랑색과 신호등의 노란색은 경고의 표시입니다. 도로표지판의 빨간색과 신호등의 빨간색은 위험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환난은 경고 또는 위험표시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생활에서 뒷걸음질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능력 많으심을 인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 곁에서 할 일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예수를 깨우며 도움을 청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분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자 하라고요 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몰아닥친 광풍을 통하여 잠자 하라고요하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의 하나인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실 때이든지, 광풍을 진압하실 때이든지(4:39), 적대자들을 대항하실 때이든지간에 언제나 ‘꾸짖으시고’, ‘잠자게’ 하셨으며, 그 결과 즉각적(s/1:42; 2:12; 5:29, 42; 7:35; 10:52)으로 ‘엎드려 지거나’, ‘잔잔하여’ 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와 사탄의 세력 간의 투쟁의 측면에서 묘사된 것으로서 예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는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5:41-42),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그를 시험하며 멸하려는 적대자들을 침묵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 앞에서 ‘엎드려 지거나’(3:11),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5:6).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고 또 그 분을 인정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시시 때때로 광풍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광풍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처럼 때때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꾸중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시련이 몰아쳐 올 때에, 하나님이 죽고 계시지 아니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사는 것이 지루하고 고달풀 때에, 되는 일이 없고 답답 할 때에, 악한 사람이 믿는 우리 신자들 보다도 하는 일마다 더 잘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말씀 한 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들은 박해로 인해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 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가 돌풍에 위기를 만난 것처럼 이들 교회들도 박해로 인해서 전복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 교회의 배후에는 교회의 목자와 신자들을 지키기에 능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화려한 인자의 모습으로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배를 요동치게 하던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잔잔 하라”는 명령을 막 내리시려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천상에 모습을 보이신 인자는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전능의 왕이십니다. 이 분은 힘 있고 전능한 심판주요, 재림주이시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불꽃같은 눈과 단련된 발과 예리한 말씀의 검과 해처럼 빛나는 힘 있는 모습을 하신 구원의 주시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장중에 불으시고, 교회를 왕래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극한 절망을 극복하고

버지니아 게이터라는 여인은 몇 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타이 피스트가 되었고, 곧 비서로 채용되었지

만 손가락 끝이 아프기 시작하는 슬레더 더마라는 무서운 병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녀를 친절한 의사들이 양손에서 몇 개의 손가락을 자르고 의수를 하라고 총고했고, 결국 두 손가락은 잘리워졌습니다.

로버트 슬러 목사님이 그녀를 심방하였을 때 그녀는 “괜찮아요. 목사님.”하면서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두 달 후에 그녀는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의 과장님이 지난 주 휴가를 떠나셨는데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회사의 경

리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인사 기록카드를 보시다가 제가 그런 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 후, 저는 회사 경비 분석자가 되어 타이피스트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닷컴 제공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려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적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기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탭’**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 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RIE(8-16채널) 고급제품 大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구입!! (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판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전국 대리점(취급점) 모집〉

3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44-9040

팀을 하나 되게 하라



한 명의 리더가 그룹을 이끈다는 것은 그 그룹의 관계까지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예배인도자가 리더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예배 그룹을 이끌 때 그들 모두 예배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한 제사를 올려드리게 할 수 있다면, 그가 이끄는 그룹은 함께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을 전보다 배나 더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배인도자는 먼저 예배팀이 갈등 없이 서로 의존하는 팀워크를 만들 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1. 비전 제시 :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가장 큰 도구

나는 예배팀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먼저 내가 이들의 감성이 풍부하다고 믿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통해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며,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렇게 믿어야 최소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배팀에 소속된 이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내 다른 성도들보다 감

정적으로 좀 더 민감해져 있을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이 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배팀원들 간의 갈등이 반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배인도자가 팀 내에서 팀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도자의 '위치'이다. 만약 예배인도자가 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중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다 보면, 갈등이 풀리더라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도자를 많이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간의 갈등을 발견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이 인도자 자신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당사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언제나 팀원들이 바라보는 곳이 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게 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비결이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간의 갈등을 발견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이 인도자 자신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당사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 리더의 고립 : 서로 의존하는 팀워크 조성

행정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느 그룹이든 그 그룹의 탑 리더(Top Leader)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리더에게는 자신

을 따르는 하부조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타월한 행정이 요구된다. 사실 행정을 모르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리더들은 자신의 부교역자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문어발 행정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문어의 대가리를 탑 리더라고 할 때 모든 부리더들은 그 탑 리더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어색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어발식

행정의 유익이 있다면 모두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팀원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사라지고 서로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배인도자 또한 다른 어느 리더들과 같이 문어발식 행정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다. 나는 어느 교회에 가봐도 예배팀원들 중에 누군가는 리더의 결례에 서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다. 그럴 때 인도자가 실수하기 쉬운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보면 다른 팀원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하고, 간혹 리더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리더의 즉근이 팀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한다. 예배인도자인 당신이 정말 그 형체나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팀원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인도자가 그 사람과 약간의 관계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다.

평신도 예배인도자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은 아직도 수많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며 자신이

하는 가벼운 행동이나 말이 다른 어느 성도들이 할 때처럼 교회가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한 그룹의 예배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리더라는 위치가 아름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팀원들에게 있어서 그는 '사역자(Minister)'이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의 고립은 어찌면 하부 조직의 단단한 결속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나는 여러 교회의 예배팀을 운영하면서 나의 행동이 팀원들 간의 관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리더로서 나는 팀원 중 한두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미지 않아 팀원들 간에 거리감이 생겨나더니 결국 이로 인해 몇 사람이 팀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배인도자의 자리가 다른 리더들처럼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 선망하는 자리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배인도자는 예배팀원들 간의 단단하고 끈끈한 영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서로가 리더를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서로를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리더가 그 자리를 버우게 되는 상황이 올 때도 결코 팀워크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예배인도자는 예배팀원들 간의 단단하고 끈끈한 영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이다.

◆고용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꿈꾸는 예배 인도자』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LA 카운티 지역에 소재한 주안에 교회에서 예배사역을 하고 있다.

입김, 찬양자의 마음 준비 2



찬양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느낌대로 마음껏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생영이 들어 생명을 순산하는 것이다. 없었던 배에서 아이가 태동하고 드디어 산달이 다 되어 태어난다. 찬양의 행위란 없는 것을 생기도록 자신의 영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아니다. 아주 연기를 잘하는 자는 그 배역을 가장 잘 재현하도록 자신은 죽이고, 제3의 성격을 표현해 내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그 배역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배역에 대한 배신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환호한다. 그러나 그 환호가 나귀가 자신에게 칭송하는 줄 알고 으쓱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이다. 목에 힘이 들어간 가수들과 뮤지컬 배우를 보면 우스꽝스럽다. 감정 몰입 만이 다인 줄 아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인 행동의 목적만 생각해서 그렇다.

주인공이 살아있게 행동하는 것은 그 자신이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것 이상의 비움이 필요하다.

오늘날 찬양하는 자들과 설교자들이 무대 앞에서 회중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지면서 회중이 환호하는 게 그들 뒤에 계신 리더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리더 역시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적극적이다.

까? 그들은 그들 뒤에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기술력만 자랑한 것이다. 회중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현장에 계시지 않자 떠난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찬양이 몹시 세련된 현대 교회에 살고 있다. 시골이나 작은 교회에 뛰어난 지휘자와 찬양자와 설교자는 많지 않다. 그들 뛰어난 기술자를 고용할 예산도 없다. 하지만 대형교회는 명망 있는 설교가와 대학교수들이 지휘, 설교무대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되었다. 요즈음은 심지어 중급 교회나 중급 찬양대조차 유학을 다녀온 설교가, 지휘자들이 무대의 디수를 차지하고 있다.

리더가 진행하는 예배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선종 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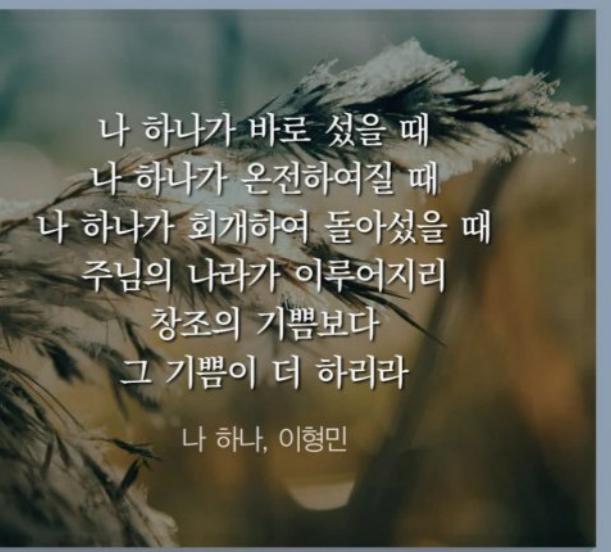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 성서 번역가

어느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이 깊은 설교, 찬양은 설자리를 잃고 하나님 아닌 사람과 접촉하는, 더 많이 배우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인간 소통을 잘하는 센스 있는 설교자, 찬양자들이 대접받고 있다. 말씀의 영과 찬양의 영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입을 잘 놀리는 행위에 생명이 없으면 그 후에 사탄의 짓으로 쉬 변하는 것을 경계하고 증명한다.

하나나와 예레미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물론 처음엔 하나님도 주의 말씀을 대안하는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잘나가던 스피커였던, 도시의 유능한 하나님의 입을 사용하지 않고 입이 둔한 무식쟁이 뽕나무 농사꾼을 들어 쓰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기호와 많이 다르신가 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수 인간들의 기호를 의식한 센스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 현장에서 자신의 메신저 역할에 그쳤다.

찬양 한 모금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법학도들 위한 힐링 콘서트 'Hidden Paradise' 개최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복음집회와 힐링 콘서트 'Hidden Paradise'가 7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 빛섬 1층 애니버서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복음의 위로와 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됐다.

첫 무대는 11시 30분 환영 영상과 함께 시작되며,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식사와

함께 선배 법조인 및 타교 로스쿨 학생들과 교류하며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오후 1시부터는 두 번째 공연과 토크쇼, 샌드아트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메인 강사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가수 범키, 하다쉬뮤지의 50kg과 아년딜라이트, 팬텀싱어 출연자 존 노, 장근희, 조주태, 그리고 샌드 아티스트 박정아 등이 출연한다.

행사는 온누리교회와 법조인들의 후원, 그리고

로스쿨기독학생연합(로기연)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노형구 기자

기성 총회,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 해설 영상 배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안성우 목사, 기성) 총회는 교단 신학 정체성을 담은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 해설을 영상으로 제작 배포했다.

기성은 2021년 성결교회의 교리와 특징을 명시하는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답서'를 출간하면서, 이 신앙고백서에는 기성 교단의 정체성이 사중복음뿐 아닌 한국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성경, 복음, 교회, 삼위일체 등이 보편적으로 설명돼 있다.



기성 제119년차 총회 ©기독일보DB

만 신학적 내용이 어려워 개교회 활용을 위해 네 차례 공청회를 거쳐 이번 해설 영상을 만들었다고 기성 측은 전했다.

해설 영상은 약 5분 분량의 영상 22개로 1부 '성부 하나님과 창조' 2부 '성자 하나님과 구원' 3부 '성령 하나님과 성결'로 구성됐다. 영상마다 5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기성 총회는 "해설 영상을 통해 성도들이 성결

교회 신앙을 바로 알고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선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 (92회) 30 TV강단 영광제일 (이기용)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 (2회) 40 성경 속 전쟁사 - 에피소드 7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김대훈 목사(부산초량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춘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생명의 양식 대한 (윤경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 (35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화 (843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18회)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간길 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장원상남교회)	20 말씀의 샘터 한동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목 목사	30 휴먼네컷	20 주만찬 (83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 (4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8:00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애센스 3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회남한교회)	00 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1577회)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 (4291회) 요한복음 5강	00 성지가 좋다 (48회) 예수님이 흔적을 따라 10 30 비전메시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20 [드라마]더 초조	0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우 목사	0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	10 새롭게하소서 (1129회) 최일도 목사 김연수 사모 2부	00 THE 궁금 (14회) 성경에 대해 40 성경 속 전쟁사 - 에피소드 8
10:00	20 CTS 두란노 성경교실-이정숙 前 총장	00 다큐 더 루드 20 신의 2주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인이 함께 드리는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00 CBS NEWS 10 20 맨투맨 처치 (1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4회)	00 만나 워십 김병상 목사
11:00	1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30 말씀의 샘터 회광교회 윤호균 목사	1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50 자선법의 강성테라피	00 만나는 교회 (1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 (488회) 오택현 교수 두 번째 6강 소예언서 : 민족사 시대와 무명의 예언자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9회) 50 글로벌 신앙토크쇼 웃즈업 (13회) 성경 속 부동산 & 가나안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유영원 목사(하늘중앙교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30 말씀의 샘터 마리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권준 목사(서애틀형제교회)	00 TV강단 새온혜 (황현택) 30 TV강단 포도나무 (여주봉)	30 강연소 통 (12회) 강정은 모국아입니다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 트루카페 편	00 말씀의 샘터 광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출판특강 (<나침반>) 시즌2	2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6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0 말씀의 창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2025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0 말씀의 힘 양곡 (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 (1097회) 박종호 장로 2부	00 백석의 샘터 (20회)
15:00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 (4289회) 스가랴 6강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이상문 목사(두란노교회)	00 말씀의 샘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샘터 수령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4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50 [말씀] 안광복 목사(성당교회)	10 성서 700 도시여행 (18회) 50 더 콜링 (103회)	00 내 삶의 행복 (15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
17:00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복상 3분 미라클	00 류영모 목사의 맛난 이야기 10 말씀의 샘터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 40 아빠스의 기도	30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16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788회) 50 영혼의 양식-양천 (김동인)	00 성지가 좋다 (485회) 예수님이 흔적을 따라 10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선우옹 목사(이룸교회) 30 말씀노트 40 부흥어개인	10 선교의 땅 가나다 40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5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기도회	00 TV강단 한성 (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 (남상진)	30 말씀의 창 선교중앙교회 과태권 목사
19:00	30 광림의 시간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5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기도회	00 거룩한 뜻 세움의 시간 (10회) 30 TV강단 정동제일 (천명태)	00 말씀의 창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더 메시지 10 말씀의 샘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40 사론의 꽃 필 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신약의 세계로 오십소2 50 저스트 텐 미닛 <워리브>	00 한소망 말씀 (최봉규) (12회) 50 크리스천칼럼 순복음원당 (고경환)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강연소 통 (12회) 강정은 모국아입니다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40 GOODTV 뉴스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 (4291회) 요한복음 5강 50 살롱 쌀롱 (13회)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Seed' (시드) (55회)
22:00	20 백설기	00 우리들의 자식실룡 30 세계테마기행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 (1129회) 최일도 목사 김연수 사모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이브 (47회) 20 소문난 성경교실 (485회) 오택현 교수 두 번째 3강 소예언서 : 아모스와 사회정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6회)
23:00	20 바이블프로젝트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 트루카페 편	00 2025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	10 J.D. 그리어의 깨어진 사람들과 위대한 믿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맨투맨 처치 (10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13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1577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21회) 50 리비아즈 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명사들의 명강 40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10 CBS 아카데미 숲 (124회)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1: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이정숙 前 총장 5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	00 예배실황 한소망교회	0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기도회 (7회) 40 CBS 비전특강 이용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물었던 이야기 (22회) 40 성경 속 전쟁사 - 에피소드
2:00	10 다니엘기도회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	30 말씀의 힘 양곡 (지용수)	00 우리 함께 찬양해 (13회) 난곡중앙교회 1부 40 김병상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오늘의 정원 50 이영훈목사의 힐링스토리	0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00 [Global Sermon] J.D. Greear's Broken People and Famous Faith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00 율포원 (636회)	00 만나 워십 김병상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4290회) 사도행전 26강 50 CBS 교회소식 (1001회)	00 말씀 관통 이목사의 성경 맥잡기 (426회) 고린도전서 3장 맥잡기 2 40 힐링토크 회복 (714회)

사랑의교회, 대선 앞두고 '구국 금식 기도회' 진행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1일 주일예배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아신대 한국어학당, 'K-문화' 애구 관람 체험 진행



아신대 한국어학당 학생들이 지난 5월 29일, K-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프로야구 관람했다. 김진영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tenxion innovation

“SK”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이노베이션